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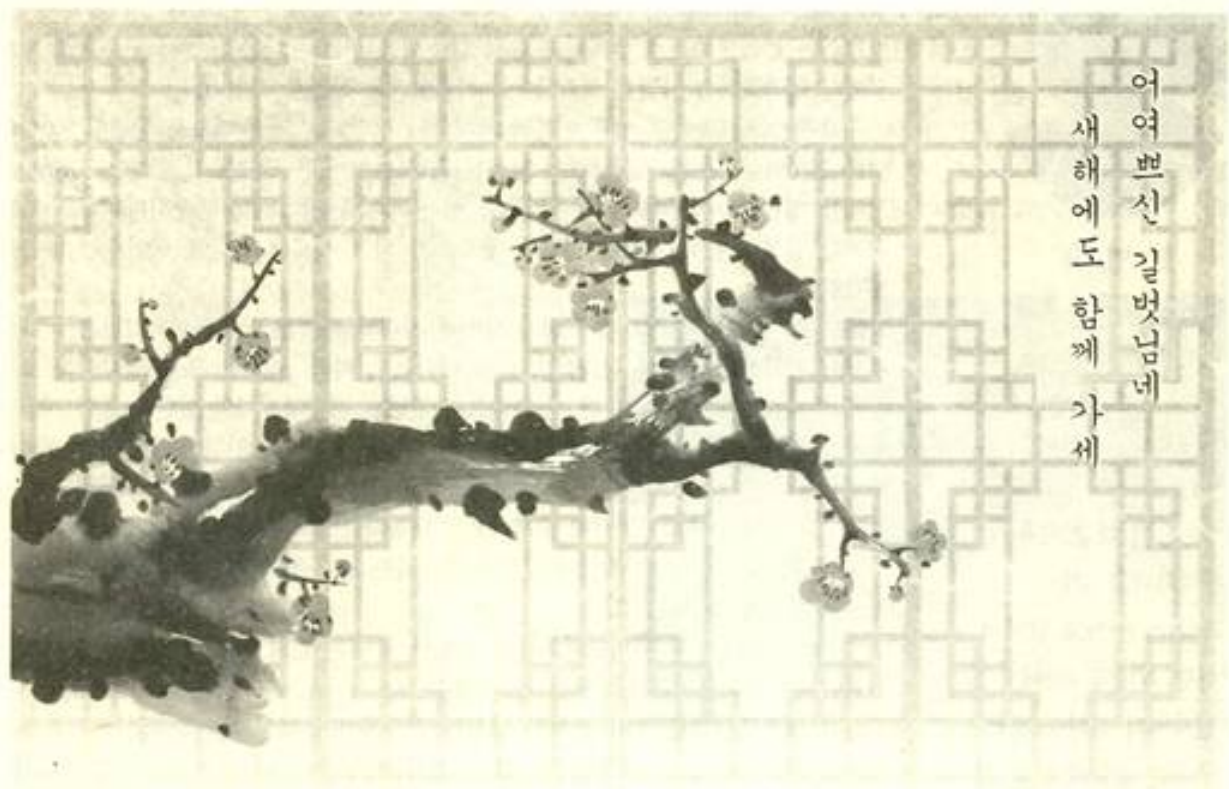
발행일/
1994년 1월 15일
발행인/한명숙
발행처/한국여성민우회
100-391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전화/269-5763~5
팩스/269-5766

함께 가는 여성

1994

1

통권77호



어여쁘신 길벗님네
새해에도 함께 가세

- | | |
|--|---|
| 2 더불어 한걸음씩
더 큰 배짱과 용기로 발걸음을 크게 떼어보자 | 12~13 생활의 지혜/컴퓨터 배움마당 4
멀티미디어 시대를 준비한다 |
| 3 동네는 작은 국가/지역자치와 여성 1
지역자치는 나라살림을 알뜰히 하는 최선... | 14~17 이야기마당/페미니즘 연극 '무소의 뿔처럼 ~'를 보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갈만 하던가요? |
| 4~8 특집/노원-도봉 지역협의회 발자취
수락산, 도봉산보다 더 커나갈
노원-도봉 골목골목 작은 국가들 | 18 탐방/신경혜-우원식 부부를 찾아
위기는 커녕 갈등도 모르는 부부 |
| 9 회원활동/모니터 '전원일기'와 '대추나무 사랑걸렸네'
지금도 아궁이에 불지피는 농촌
지레 겁먹은 동아일보(?), 개탄스러울 뿐 | 19 우리직장 이야기
불길도 헤치고, 물길도 헤치고 ... 참새의 하루 |
| 10 문화마당/창덕궁 뒷뜰 '비원'을 찾아
'후원'이라 불러봅시다 | 20~21 지역협의회 소식
하얀 눈빛으로, 겨울과 새해 이야기... |
| 11 회원이야기
부루세라가 판치는 세상, 일본인들의 불꽃놀이 | 22~23 생활협동사업부 소식
안녕하세요? 민우회 생협입니다 |
| | 24 알림마당 |

이 경숙님께서 기증하셨습니다.

더 큰 배짱과 용기로 발걸음을 크게 떼어보자



한 명숙
한국여성민우회 회장

1994년 새해 벽두에 나는 지난 4년간 맡아왔던 한국여성민우회 회장직을 벗게 되었다. 한마디로 아쉬움과 회망이 얹히는 느낌이다.

좀 더 열심히 뛰었다라면 회원들과 훨씬 깊은 사람을 가질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가장 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헌신적이고 능력있는 새 일꾼들이 바톤을 받아 민우회를 힘차게 이끌어 가게 되었다는 사실은 생각할수록 가슴설레는 신선한 회망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이른바 국제화와 개방화의 거센 파고를 향해갈 이 어려운 시대에 한국여성민우회가 감당해야 할 역사적·사회적 몫은 크고도 소중하다. 더구나 지역화 시대를 여는 첫 관문에 서서 우리들의 꿈과 과제를 펼쳐나갈 민우회가 지도력의 새로운 교체를 실현하게 되는 것은 운동의 활력소가 되고 새로운 전망을 열어주는 좋은 전조라 생각한다.

과연 이 대격변의 시기에 우리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국제화에 병행하여 지역화·지방화를 심도있게 밀고 나가는 일이다. 이것은 또한 세계사의 보편적 흐름에 합치하는 일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통해 지역적 삶의 회복을 꾀하는 일 즉 여성복지, 교육, 환경, 주택, 교통 등 인간의 생활영역 전반에 걸친 주민자치의 실현,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동체적 삶의 구현이며 이를 이루어내기 위한 운동이야말로 국제화·개방화정세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내년 초, 제2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민우회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계획에 착수하고 있다.

민우회는 다섯개의 지역협의회에서 그동안 쌓아온 일의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지자체 선거를 우리 자신의 과제로 끌어안고자 한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란 남성의 전유물이며 여성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한다. 정치와 거리가 먼 여성일수록 또는 정치문맹일수록 더 매력적인 여성으로 평가받고 정치에 관여하는 여성은 콧대높은 별난 여성으로 취급받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의식의 수준이다. 따라서 '권력이 있는 곳에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현실은 매우 후진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율은 서구의 평균 15%, 북한의 20.1%에 비하면 대단히 낮다. 지방의회의 경우 0.9%, 국회의 경우 1.3%로 고작 1% 내외이며 14대 총선에서 지역구 당선자는 한명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치참여율과 정치의식의 후진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번 제2기 지방자치제 시대를 맞아 1994년 중점사업으로 '지방자치제와 여성의 정치참여'로 정하고 지금 1%에 머물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을 10%선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이 목표의 실현을 이루어내는 현장이 바로 우리 민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민우회가 걸어온 지난 7년의 세월, 우리는 불과 100여명이 맨주먹으로 시작하여 회원 2,500명이 모이는 너른마당의 풍성한 공동체를 일구어냈다. 생활협동사업을 시작해 그 힘 들고 무집계만 보이던 '생협'의 수레를 밀고 끌어 이제는 가파른 언덕길을 지나 평지에 올려놓는 획기적 성과를 이룩하였고, 직장여성의 권익과 인권이 걸린 사안마다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는 실천으로 한국여성운동의 신뢰받는 현주소로 성장하였다.

앞으로도 민우회는 비록 우리가 사는 생활터가 약육강식의 살벌한 싸움터로 변해갈 이 험난한 개방세계에서도 평화와 정의를 꿈꾸고, 이땅의 여성과 더불어 새로운 공동체적 삶의 씨앗을 뿌리며 가꾸는 일손을 결코 늦추지 않을 것이다.

더 큰 배짱과 용기를 가지고 큰 발걸음을 떼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 이후
더욱 본격화되고 있는
국제화·개방화의 거센 파고 앞에서
우리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지역화와 주민자치의 실현을 통해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동체적 삶'의
구현을 위한 운동을 심도있게 밀고
나가는 일이다.

.....

지역화시대를 여는 첫관문에 서서
민우회 지도력의 교체는
우리들의 꿈과 과제를 펼쳐는데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임을 자신하며
더 큰 배짱과 용기로
발걸음을 크게 떼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지역자치는 나라살림을 알뜰히 하는 최선...

김 선 옥 한국여성개발원 조사연구실 책임연구원

지난 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실시로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도가 30여년만에 다시 도입된지 벌써 4년째가 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은 정보혁명, 과학화, 기술화 등의 사회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체제의 민주화, 다원화, 분산화, 개방화, 개체화, 권력의 분권화 등 미래사회의 변화방향과 일치한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자치단체장의 임명, 중앙과 지방의 기능과 권한의 미분배, 제정의 미독립 등 그 본질적 요인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 지방자치제도로 서기 위한 제도적 성숙과 발전의 과제를 안고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민주주의를 훈련하고 실천하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회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중앙정부가 국가생활에 필수적인 존재라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활에 불가결한 존재로서의 역할이 있다. 상하수도, 오물처리, 식품, 보건, 도로정비 및 교통, 소방, 체육, 문화, 교육행정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줄 수 있는 것들이며 또한 직접 줄 때 더 효과적인 것들이다.

지난 연말 우르라이아운드의 타결과 함께 사회 각분야의 개방화와 국제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준비없이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과학, 통상, 기술 등에 전력하여 국가경쟁력을 키워야 할 부담이 더 커졌다. 이를 위하여도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행정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1월초에 정부는 국가의 개혁은 국민의 생활의식의 개혁없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국민 생활개혁을 위한 당면과제를 각 부처별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만약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과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할 일이지, 지금처럼 국가적 차원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이때에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 등 국가행정담당자들이 이를 위해 시간을 써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구성요소라는 이론적 이유에서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과중한 업무량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함으로써 중앙정부는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대규모조직

에 내재하는 조직상의 복잡성과 경직성을 덜 가지므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신속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또한 공공의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그 지방의 전통이나 특수성을 반영시킬 수 있다는 실질적 이유에서도 분명 성숙되고 발전되어야 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제 내년에 실시될 선거를 맞이하여 우리의 지방자치제도가 한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여성들과 여성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새로 시작된 우리의 지방자치제도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확립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하고, 지방의회의 활동, 지방행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조직적으로 함으로써 참여와 감독을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여성들의 지방정치에의 참여증진을 위하여 여성정치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조직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0.9%의 여성참여율을 가져온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거지원을 위한 조직적 활동, 정당에 대한 압력을 통한 여성정책의 유도과 여성후보 지지 그리고 정당의 할당제 도입과 같은 제도적 지원장치의 정치적 압력 및 여성의 정치교육 기능도 효과적으로 담당해 주어야 한다.

지방자치제도가 성숙, 발전하면서 생활속의 정치인 지방정치에 여성들의 참여의 기회는 더욱 증진되고 여성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즉 지역사회에서의 여성의 조직적 참여와 활동을 통하여 여성은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세력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발전과 여성의 발전을 의미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성숙, 발전을 위한 여성단체의 역할을 앞으로 「함께 가는 여성」을 통하여 민우회 회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기본 지식, 선거제도,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사회운동, 지방정치에서의 여성참여증진을 위한 유권자·후보자·지원자로서의 역할, 지방정책의 영향자로서의 역할, 지방여성정책 등에 관한 테마를 중심으로 계속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수락산, 도봉산보다 더 커나갈 노원·도봉 골목골목 작은 국가들

이 경 숙 노원·도봉 지역협의회 대표

2년간의 생협활동 기반과 여성사회교육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노원·도봉지역협의회는 사무실을 열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도 생협 매출액이 적어 '들어가면 손해'라는 무언의 압력으로 가슴이 조마조마했던 터에 교육원의 재정적 지원은 장마뒤의 단비처럼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었다.

지역운동에 관심있는 소수의 회원이 모여 무슨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의논한 결과, 먼저 사무실을 마련하기로 하였다(교육원의 지원에는 사무실 마련이 전제조건중 하나이기도 했다). 전철역 주위를 살살이 뒤져봤으나 엄청난 임대료로 좌절감에 축 늘어져 있을 때 허름한 복덕방에서 지금의 사무실을 소개받았다. 그전의 미술학원이 잘 운영되지 않아 임대료가 싸게 책정된데다 주인아줌마의 착각(월 10만원을 낮게 말함)으로 유난히 싸게 나온 곳이었다. 상대방의 피해와 실수가 이때처럼 고마울 때가 또 있을까. 지금은 벌써 좁다는 느낌을 갖지만 당시만 해도 운동장만 해보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 모두 약정액을 정하자' 뭉치돈을 모아 사무실을 열기까지

이런 기쁨도 잠시, 돈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문제였다. 보증금 1,000만원. 우리에게는 큰 뭉치돈이었다. 사무실의 필요성이 대다수 회원들에게 공감되지 않은 시점에서 아찔하기만 했다. '열려라 참깨' 하는 심정으로 회원월례회에서 부딪쳐 보기로 했다. 모금하는 것은 무리라 생각하고 회원들에게 3년간 이자없이 빌려보자는 안 외에는 별 뾰족한 대안없이 월례회가 열렸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했던가, 그 염원은 월례회때 뜻하지 않은 회원의 '우리 모두 약정액을 정하자'는 제안에 한사람씩 약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하룻사이에 목표액이 달성된 것이다. 내친김에 그 사무실이 나갈까봐 줄달음으로 사무실을 계약했다. 우리의 힘이 노원, 도봉을 둘러싸고 있는 불암산, 수락산, 도봉산보다 더 커 보였다.

사무실 입주 전까지 지역조사(여성생활 및 지역사회 욕구조사)를 하기로 했다. 지역활동을 경험한 전문가와의 면담과 301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



여성학강좌를 수강중인 수강생들, 70여명의 열면 호응속에 진행되었고 50여명의 비회원중 11명이 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하였다.

사결과 최고 관심사는 자녀교육문제로 나타났고 환경문제,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부들은 여가시간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문화강좌를 수강하는 데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제는 내가 나서지 않더라도 누군가 해결해주겠지 하는 비주체적이고 이기적인 단면을 볼 수 있었다. 주부가 사회에 책임있는 구성원이기를 바라는 운동적 원칙과 여기에는 무관심인 현실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식품환경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에는 32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그동안 전개한 생협활동에 대한 확신과 회원 내부의 결속력을 더욱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무실임대, 지역조사, 식품환경교육을 마무리짓고, 드디어 92년 4월 6일 사무실 개소식을 갖게 되었다. 우리의 돈으로 마련한 사무실에서, 청성들여 만든 음식을 먹으며 참석한 80명은 우리의 포부에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었다. 그 격려에 힘입어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93년 송년회도 재미있게 가졌다. 그동안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밝히려는 편집실의 엄명에 기꺼이 응하게 된 것도 우리의 맨살을 드러냄으로써 민우가족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를 받기 위해서이다. 피부가 거칠다 생각하지만 민우가족들의 윤택유 공급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해온 생협활동 이외의 활동을 소개해 본다.

교육사업은 두 종류로 이루어졌다. 주부의 사회의식을 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열려라 참깨' 하는 심정으로 회원 월례회에서 부딪쳐보기로 한 사무실마련의 염원은, 모두가 약정액을 말하면서 하룻사이에 이루어졌다. 내친김에 줄달음으로 사무실을 계약하고... 우리의 힘이 노원, 도봉을 둘러싸고 있는 불암산, 수락산, 도봉산보다 더 커보였다.

취하기 위한 사회교육과 여가시간도 민우회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실시한 문화강좌가 바로 그것. 가장 큰 문제는 교육사업에 대한 홍보였다. 한동네에서 민우회를 아는 주부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나 교육내용을 알리는 것이 보통일이 아니었다.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였다. 제일 처음에는 아파트 경비실 입구마다 전단을 두었는데 편한만큼 효과가 없었다. 주부들 손에 직접 닿게 하는 고달픈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전철역, 백화점 주위에서 전단을 나눠주기도 했다. 아니면 엄마, 아이가 힘을 합쳐 아파트 개별투입구에 전단을 집어넣든가, 경비아저씨의 눈을 피해 우편함에 넣어야 했다.

이렇게 몰래 눈치밥을 먹으면서 하던 홍보작업은 작년(93년) 10월 여성학강좌때는 부녀회장 도장을 받아 포스터를 게시판에 합법적으로 부착하였다. 그 의기당당함은 국민학생 시절 선생님께 인정받았을 때의 그런 기분이었다. 실은 부녀회장의 도장을 받는 것도 만만한 일은 아니었다. 포스터 한 장 붙일 때도 돈을 받는 부녀회가 많고 그나마 무료로 부착한 곳은 회원소개를 받은 곳이거나 교육장소가 공신력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민우회가 지역내에서 뿌

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민우회본부가 공신력있는 단체로 부상되어야 함을 실감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일일이 전단을 나눠주거나, 부녀회장의 도장을 받아 포스터를 붙이는 한계가 뚜렷하였다. 열심히 하는 회원들이 교육전단만을 뿌릴 수 있을만큼 한가하지 못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지역신문에 유료광고를 내든가 교육전단을 유료로 신문갈파에 집어넣는 방법을 택했지만 <표1>에서 나타난대로 별 효과는 없었다. 기댈 곳은 회원밖에 없었다. 회원의 입과 입을 통해 알려지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었다(수강생의 56.9%).

몰래몰래 눈치밥 홍보

주부와 함께하는 교육의 장으로 정착하기까지

그밖에 돈이 안나가는 방법으로는 중앙일간지 소식(11.4%), 수강생권유(11.1%), 지역신문(3.4%) 순이었다. 나머지 즉 610명중 85명(13.9%)만이 우리의 돈과 고달픈 노력에 의해 수강을 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신력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홍보방법은 사람의 입을 통한 방법과 단신이라도 중앙지에 실리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다.

교육내용은 크게 사회교육, 자녀관계교육, 문화강좌로 나눌 수 있는데 여성학강좌가 수강생수, 출석률, 회원가입률 면에서 성공적이라 할 수 있겠고 자녀관계교육은 무난하게 진행된 편이었다. 문화강좌 수강은 메이크업(94명), 비디오 촬영(75명), 손침(63명), 생활도자기(62명) 순으로 나타났다.

회원참여율은 사회교육(46.6%), 여성학(30.9%), 자녀관계교육(29.9%), 문화강좌(28.6%) 순이었다. 사회교육에 참여율이 높은 것은 5기때 회원들이 무료로 수강했기 때문에 높게 나타난 것이고, 5기를 제외하면 34.7%로 각 강좌에 골고루 참여하였다. 이는 우리 회원들의 관심이 다양함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회원가입률을 보면 자녀관계교육(27.7%), 여성학(22.4%), 사회교육(20%), 문화강좌(4.4%) 순으로 문화강좌와 비문화강좌 사이의 뚜렷한 차이가 보인다. 민우회가 문화, 취미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문화강좌 수강생 역시 돈주고 배우면 끝이라는 의식에서 머물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하나의 특징은 문화강좌 수강생들이 조직에 가입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점이다. 조직의 쓴맛(?)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 조직의 단맛을 주고 싶은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지나친 환상일까.

그렇다면 굳이 왜 문화강좌를 하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문화강좌를 실시해야만 하는 대단한 이유는 사실 없다. 다만 주부들의 욕구가 크고, 쉽게 주부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소박한 욕심으로는 우리 회원이

내용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여성학
전단	2,300장	22,000장 (문지 18,000)	10,000장 (문지 9,000)	5,000장	5,000장	5,000장	5,000장
현수막	1	1	1	1			1
중앙지	5	2	2	1	3	4	4
지역신문	6	2			1	4	4
라디오	1					1	2
유료광고				2	2	2	
포스터							500장

<표 1> 교육 홍보방법

내용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여성학
회원	21	51	18	25	42	17	22
회원권유	18	25	46	33	19	10	7
수강생권유		14	8	13	17	16	
전단	2	9		8	8	13	6
중앙지	1		7	5	24(초신19)	19	14
지역신문	13	2			2	1	3
신문간지		9	4				
현수막			1	1			
유료광고				13		3	
포스터							6
기타						1	13
계	55	110	84	98	112	80	71

<표 2> 수강생 수강경로

나 주부들이 다른 문화센터에서 시간을 보내기보다 민우회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 민우회 홍보의 계기, 적은 수이긴 하지만 10명이나 회원가입을 한 것이 지속하는 이유일 수 있겠다. 수강생들 스스로 다른 문화센터와 다른 점으로, 수강비가 저렴한 데도 강사진은 우수하다는 점, 참가자들간의 친목도모가 잘 된다는 점 등을 꼽고 있다. 지역주부들의 욕구가 지속되는 한 문화강좌는 개설될 것이다. 앞으로는 제도교육에서 미처 손대지 못하는 자녀교육 강좌들을 새로이 개발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94년 1월에는 유희준교수와 함께 유적지를 탐방할 계획이다.

그밖에 주부의 요구에 따라 명예교사를 위한 특강(32명 참석), 어린이 환경학교(37명)를 실시하여 호응도가 높았지만 전문성 부족으로 1회에 그치고 말았다.

교육을 통해 발전한 또하나의 양태는 회원이 전문강사로 활약한 점이다. STEP(황주영), 종이접기(김말남, 김연순), 일어(최찬애), 쓰레기문제(김은경) 등.

91명에서 시작, 지금은 3배로 성장하고 조직의 단맛을 나누고픈 환상아닌 희망을 위해

처음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는 차비 떨어졌으니 돈 보태 달라는 노인과 외판원들이 많이 찾아오더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주부들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환경을 생각할 때입니다. 쓰레기 양을 줄여주시고 전할 말씀 있으면 전해주세요.' 자동응답기에까지 본인의 실재를 유감없이 드러내는 실천적인 주부, 학습하면 머리에 쥐가 나니 몸으로 배우는 일반 하겠다는 주부, 구체적 목표가 눈에 보일 때에만 행동하는 주부, 교육도 취미활동도 남는 게 없다면서 의미있는 봉사활동을 원하는 진지한 주부, '민우회의 '민' 자가 무슨 뜻이냐' 민우회를 이리저리 파헤쳐보고 가정생활에 별 지장이 없다는 확신이 설 때 행동하는 주부, 한반자국만 민우회에 담가놓고 뽕까 더 답글꺼를 망설이는 주부 등등. 다양한 욕구를 가진 주부들이 찾아오지만 이 모두를 충족시키기에 우리의 그릇은 너무도 비좁기만 하다.

좁은 그릇이나마 몇가지만을 수용해서 내부 조직활동을 펼쳐나갔다. 91명에서 시작하여 3배정도 그 수가 늘어났지만 내부활동은 크게 사무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소모임활동과 생협공동체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소모임활동이 회원이 사무실로 나와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거나 실천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라면, 생협 공동체활동은 회원안으로

들어가 여러가지를 모색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겠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무실로 나오는 소모임활동은 대체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지만 안으로 들어가는 생협 공동체활동은 부진한 상태이다. 이점이 바로 노원, 도봉지역의 최대 취약점이라 할 수 있겠다. 공동체 간담회 한번 들어가면 생협 매출액에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년동안 한번밖에 못했다. 이유는 인력부족도 있지만 공동체를 재미있게 꾸려나갈 아이디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매번 생협구매, 공급 이야기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여러가지 이유로 사무실에 못나가지만 공동체활동을 희망하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노원, 도봉지역의 실과 실을 이어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소모임과 생협 공동체활동 목표와 실천이 구체화될 때 활동도 활발

사무실 중심의 소모임활동으로는 <바른 의정을 지키는 여성모임> <여성학세미나모임> <환경모임>이 있다. 특히 <환경모임>에서는 주부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주부의 손에 지구가 있어요」라는 환경교재를 최근 만들어 내었다. 주부들이 아침에 눈떠 잠자리에 들때까지 하루일과를 추적하여 실천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고 부녀회장과 좌담회를 통해 부녀회단위로 환경문제를 실천한 경험담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소모임활동들은 구체적 목표와 실천과제가 정해져 있을 때 활발하게 운영되었고, 지금은 노원, 도봉 지역활동의 근간이 되고 있다.

그밖의 내부활동으로는 회원 전체가 만나 강연도 듣고 친

내용	1기 입학자 22명-퇴학자 5명	2기	3기	4기	5기	6기
사회교육	자녀교육 22(8)-7	중년여성교양강좌 22(11)		자녀교육 28(6)-4	식중공해 31(23)	
환경세미나		9(8)				
STEP		7(4)-3		10(3)-7		12(3)-2
PET			8(3)-2			
손침	16(9)-1	22(10)	14(2)			11(4)
도자기	11(2)-1	19(4)	9	16(1)	7(1)-1	
생활영어	6(2)					
비디오		14(7)	18(5)-2	15(4)	14(3)	14(3)
메이크업		17(1)-2	22(8)-1	20(7)	22(5)	13(1)
사진촬영					12(6)-1	9(1)-1
자녀글쓰기지도				9(4)	18(4)	13(2)-1
어린이글쓰기			13		8	
종이접기						8(3)
계	55(21)-9	110(51)-5	84(18)-5	98(25)-11	112(42)-2	80(17)-4
여성학						71(22)-11

〈표 3〉 각 강좌 수강생 수 및 가입현황

목도 도모하는 회원 전체모임(연 2회), 공동체 대표자 간담회(연 1회), 회원친목회(월 1회) 등이 있다.

교육도 좋지만 회원전체가 만나 즐겁게 노는 것도 매우 중요함을 이번 송년잔치(55명 참석)에서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도 쉽게 대려와서 많은 수의 회원이 덕담을 나누고 우리끼리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조직활동의 진수가 아닐는지.

교육사업과 내부조직 다지기에도 바쁜 우리들에게 또하나의 커다란 과제가 안겨졌다. 안겨졌다기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격이 되었다. 상계동 소각장 대책활동이 바로 그것이다.

지역신문을 통해 상계동 소각장 건설로 인근 주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주민들의 도움 요청도 없었지만 무슨 일인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 주민대책위 간부들을 만나보기로 하였다. 만나기 전에는 소각도 필요할텐데 반대이유나 알아보자는 정도였다. 만난 결과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이 전혀 없이 노원구뿐 아니라 중랑, 동대문구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쓰레기까지 1,600톤을 소각하겠다는 계획이 이미 실행중에 있었다. 소각시 배출되는 공해물질도 문제지만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이 자리잡기도 전에 쓰레기를 바로 소각하겠다는 잘못된 쓰레기정책의 문제점이 파헤쳐지기보다는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지역이기주의로 몰리고 있는 상황을 접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바로잡을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지만, 우리는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여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 엄청난 문제를 손대자니 역량이 부족하고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모른척 할 수도 없어 난감하였다. 당시만 해도 환경단체들은 다른 중요문제에 매달려 있어 상계소각장 문제까지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이었다. 결론은 힘닿는 데까지 이 문제에 나서기로 했다. 지역운동 경험도 하나없이 샘을 스스로 파야 하는 상황이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고, 상계동 소각장 대책활동 지역여성운동체로 뿌리내린 계기

먼저 올바른 쓰레기정책이 무엇인가를 알리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재 계획되고 있는 상계소각장건설의 문제점을 밝혔다. 2차 토론회에서는 노원구 대표로 뽑힌 국회의원, 시의원을 초청하여 상계소각장건설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게 하였다. 참석자 모두 소각장건설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건설은 유보되어야 한다는 합의를 공개적으로 이루게 되었다. 소각장 인근지역인 중계동 국회의원이 참석하지 않아 한계는 있었지만 2차에 걸친 토론회를 주민, 노원뉴스, 민우회가 연대하여 개최함으로써 상계소각장건설 반대운동은 지역 주민들만의 외로운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민우회도 토론회를 통해 지역내에 지역여성단체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1차 토론회때 실무를 주도하다보니 민우회만 부각되어 일부 섭섭한 주민들의 항의에 약간 화도 났지만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해보면 이해되는 일이었다. 같이 일하고 한쪽만 부각되면 섭섭한 것은 당연한 감정일 터이다. 소각장이 착공되어 한달간 시위할 때 주동자가 잡혀가는 상황에서 주민 부탁으로 시위장면을 사진촬영하다 관의 종사자로 오인되어 카메라를 빼앗길 뻔했던 일, 저녁 8시이후의 교육 등 주부들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어려움도 많았지만 배운 것도 많았다. 통·반장과 자치부녀회가 바른 입장을 가질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 같은 동네안에서 민영과 시영아파트 주민의 차이점, 주민이 중심이고 환경단체도 아닌 우리의 역할이 애매했지만 일하면서 터득한 지역여성단체로서의 역할, 그 몫은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주민단체로서의 입장과 실무력 등임을 깨닫게 되었다. 일하면서 얻은 전문지식도 성과의 하나라 할 수 있겠다.



상계동 소각장 대책활동!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에서 이 엄청난 문제를 손대자니 지역운동 경험도 하나없이 샘을 스스로 파야 하는 상황. 그러나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것은 노원·도봉 여성민우회가 지역여성운동체로 튼튼히 뿌리내린 계기가 돼 주었다.

시행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주민이기 때문에 편한 점도 있지만 편한 만큼 처음과 끝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갑갑한 측면도 있다. 일시적인 행사는 의논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일상적 활동은 주민의 요청이 없을 때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아쉬움 등이 그것이다.

주민들의 끈질긴 노력에도 상계소각장은 착공되었지만 노력의 성과는 다소 있었다. 소각규모를 1,600톤에서 800톤으로 줄이고, 3개구에서 노원구 쓰레기만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었고 재활용율을 40%까지 하겠다는 다짐도 받게 되었다. 상계소각장 대책활동은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고 주민의 힘과 노력에 따라 그 성과가 계속 나타날 것이다.

지금도 아궁이에 불지피고 시냇가 빨래하는 농촌

한 양 순 〈바른 언론을 지키는 모임〉

지역내에서 민우회가 알려진 또하나의 계기는 〈바른 의정을 지키는 여성모임〉활동이다. 본부에서 실시된 두번의 교육을 밑받침으로 내부학습과 의원간담회, 의회방청을 통해 동네안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기의회 때는 의원가슴에 꽃을 달아주고 손수 카드를 만들어 전달함으로써 의원과 함께 하는 〈의정모임〉임을 알렸다. 방청하면서 느낀 또하나의 소감은 우리의 대표가 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점이었다. 간혹 정보를 알려주는 시민제보에도 실력이 부족해서 아직 적절히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지만 방청결과를 송년회 때 촌극으로 발표하며 〈의정모임〉은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동네일을 구석구석까지 알게 되어 뿌듯함도 있지만 힘있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 수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활동이었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지를 모아 지역 골목골목마다 작은 국가를 만든다

골목골목마다 작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 민우회 생활협동사업이 유기농산물 직거래운동을 시작한지 4년. 그동안 활동을 해 오면서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은 지역 골목골목마다 작은 국가를 만드는 일. 주부의 마음에 가 닿아서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지를 심는 일이었다. 그럴 때에만 여성문제, 나아가 사회민주화를 위한 운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직은 여기에 까마득히 못 미치고 있다. 멋있는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 단단한 눈덩이를 잘 뭉쳐야 되듯이 2년여의 활동은 눈덩이를 뭉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한 열성적인 회원들의 소모임활동이 바로 그것이다.

이후에는 멋있는 눈사람도 만들어야 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각 골목에 흩어져 또 작은 눈사람을 만드는 작업도 시도해야 할 것이다.

핵심을 콕콕 잘 찌르는 데도 유난히 부담없는 여자 권미혁, “빨리 돈 내” 협박을 해도 하나도 무섭지 않은 처녀 아줌마 김연순, 특유의 주부정서로 재담이 철철 넘치는 편안한 멋쟁이 김영애, 실속도 못생기면서 날밤을 잘 새우는 확실한 여자 김은경, 남을 위해 핑가를 못해주면 뼈아픈 ‘뚝’소리 나는 여자 신경혜, 첫인상은 쌀쌀하지만 마음은 부드러운 여자(믿거나 말거나) 이경숙, 악어뱀으로 어려운 숙제를 해결해주는 척척박사 이해경, 최고로 바쁘면서도 한국표준남편과 살고 있다는 넉넉한 여자 황주영.

내년도에도 이들 운영위원이외에 돈과 시간을 바쳐 손해 보는 생활을 할 회원들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내부조직도 다져 지역여성운동체로 굳건히 서기 위해 내년도에도 얼마나 바빠 보내야 할까. 우리 인권과 가정권도 지키면서 힘찬 웅지를 펴시다. 10년이 지난 뒤에도 노원·도봉 가족에게 조직의 쓴맛보다 단맛이 더 기억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맺는다.

쌀 시장 개방에 따라 정부는 농촌을 획기적으로 개조하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고 농어민단체는 물론 각 사회유관기관들도 농촌되살리기 묘안을 고심하는 등 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도 고조되어 있다.

이에 〈바른 언론을 지키는 모임〉에서는 정통 농촌드라마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10년이 넘도록 장수해온 MBC의 「전원일기」와 KBS의 「대추나무 사랑걸렸네」를 모니터하였다. 그 결과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은 첫째 두 드라마가 농촌의 현실과 너무나 거리감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농업상황은 외적으로는 개방의 물결과 내적으로는 인력난 등으로 매년 40여만명이 이농을 하는 등 고통받고 있으며 붕괴직전에 처해 있는데도 위 두 드라마에서는 현실감과 위기감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 이런 무감각은 국가간의 치열한 경제전쟁으로서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이 마지막 타결을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하는 시점에서 ‘그래도 봄은 온다’ ‘두번째 약속’ ‘슬픈 주전자’ 등 현실문제와는 거리가 먼 감상적인 이야기들로 내용을 채우고 있다.

농촌드라마는 도시인에게 시골생활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영원한 마음의 고향으로서 농촌의 따뜻함을 그려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드라마의 배경이 분명 현재의 시점이고 드라마속의 사건들도 엄연히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날 농촌의 특수한 현실을 감안할 때 도시인의 향수나 만족시켜주는, 지금의 형태로 남아 있어서는 농촌과 도시간의 이질감만 키워줄 우려를 낳을 뿐이다.

이들 농촌드라마가 잃어버린 지난날의 아름다움이나 그리워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싶다면 차라리 드라마의 시대 배경을 60년대나 70년대로 되돌리는 것이 시청자에게 훨씬 설득력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배경에 알맞도록 극내용을 보다 현실화해야 한다.

물론 드라마는 허구이다. 그러나 시청자가 이 허구를



현실로 착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또한 드라마의 매력이다. 이 허구가 철저히 현실적이지 못한 채 현실을 가장한 왜곡을 일삼는데만 있다면 언론의 의무로서의 공정성과 사회발전의 선도자로서의 언론의 기능을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제작진의 의도가 또다시 예전 군사정권하에서처럼 정부정책의 홍보기능만을 일삼는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이들 드라마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소도구 활용면에서도 드러난다. 특히 「전원일기」에서는 아낙네들이 시냇가 빨래터에 모여 방망이를 두들기며 빨래를 한다거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등의 모습이 자주 나오는데, 산골 오지마을도 아닌 도시 변두리 농촌풍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시대배경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소품은 50~60년대 삶의 방식에 어울리는 것이다.

셋째 농촌여성을 다루는 시각이 지나치게 봉건적이고 보수적이다. 「전원일기」의 김희장이나 「대추나무 사랑걸렸네」

의 황민달 모두 가부장적 가장의 전형적인 모델이고 아낙네들은 모이면 뜨개질이나 커피 마시기, 남의 흉보기나 일삼고, 특히 KBS의 「대추나무 사랑걸렸네」는 모든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오해에서 출발, 전개되는 식으로 그려지는데 이는 우리나라 농촌인력의 많은 부분을 여성농민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을 완전히 외면한 안이한 제작태도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요즈음 농촌드라마는 오랜기간의 방송으로 인한 소재의 빈곤, 신선도의 감퇴 등 내적인 요소와 우르라이라운드 타격으로 인한 농촌현실의 변화 등 외적인 변화의 요구를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이미 그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구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위력을 지닌 방송매체가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을 통해 새롭게 정비하고, 현실과 꿈을 원만히 조화시키는 농촌드라마로 농민과 도시인이 올바르게 만날 수 있게 진정한 힘을 발휘해야 할 때다. 

지레 겁먹은(?) 동아일보, 개탄스러울 뿐

임 해 선 <바른 언론을 지키는 모임>

“여 러 연구결과 원자력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 투자의 효율성에서도 풍력발전이 오히려 유리하다. 그래서 여러나라가 원자력발전에서 다른쪽으로 옮겨가는 추세이고 미국에선 15년전 마지막 주문을 끝으로 새로운 원자로 건설은 없어지게 되었다.”

한국정부가 전력분야를 민영화한다면 원자력발전소는 결코 팔리지 않을 것이다. 원자력시대는 끝났다. 유럽에서는 영국의 대처정권이 원자력의 미래를 매우 유망하다고 예상하여 장기계획을 세웠고 원자력에 아낌없이 투자한 바 있는데, 나중에 그러나 정부가 전력분야를 민영화하려고 모든 발전소를 민간 투자자에게 팔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겼다. 석탄, 가스, 석유 등을 원료로 하는 발전소는 모두 팔렸지만 원자력발전소는 팔리지 않았던 것이다. 심지어 공짜로 내놓기까지 했지만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다. 원전 해체비용과 핵폐기물 처리비용까지 부담해야 된다는 사

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즉 경제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었다. 결국 영국 정부는 원자력에 자생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장기계획도 취소했다. 원자력발전이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장기적인 에너지원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결론인 것이다.”

이상은 지난 1월 12일 저녁 7시 35분 KBS-1 TV가 방영한 신년기획시리즈 '세계석학에게 듣는다' 중에서 제3편 "환경이 미래를 연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레스터 브라운(월드워치연구소 소장) 박사가 단언한 내용의 일부분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외국에 나가서 진단받고 미래를 계획한다는 데 대해서 민망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국내에서 짚어보기 힘든 부분까지 들춰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할 만하였다.

지구환경의 전반적인 현황을 훑어보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 다시말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과 환경경제학을 위한 한국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 지에 대해 다른 내용이었는

데 그중에는 환경과 관련된 지구촌 경제문제인 식량문제, 인구문제, 빈곤문제도 포함되었다. 앞서 인용한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은 특히 돋보이는 부분이었다.

이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나서 여러 일간지에서는 기획란을 통해 그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였다. 그중 대부분의 일간지에서는 국내에서 민감한 반응이 예상되는 부분을 완곡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대담내용 전반을 고루 요약 게재하였다. 이에 비해 동아일보는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한 채 보도하였다. 이것은 정보의 율고 그릇을 판단할 수 있는 국민의 능력을 무시하며 결과적으로 국민을 우민화시키는 잘못된 보도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공영성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KBS의 기획자세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으로 아직도 지레 겁먹고 내용을 삭제하거나 의미를 축소시키는 언론의 보도태도가 자취를 감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후원’이라 불러봅시다

장은미 회원



조 선 건국후 태조 이성계는 한양에 도읍을 정하고 정궁(正宮)으로 경복궁을 짓는다. 2대 정종때는 도읍을 개성으로 옮기었고 3대 태종때 다시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이궁(離宮)으로 새 궁을 지으니 곧 창덕궁이고, 그 창덕궁 뒤쪽에 있는 뜰이 바로 비원이다.

비원에 들어서면 각종 희귀한 수목이 우거져 있으며 많은 건물과 어정(御井), 연못이 있고, 역대 세왕과 왕후들이 이곳에서 여가를 즐기고 심신을 수양하고 학문도 닦았으며 연회를 베풀었다는 알림판 옆으로 숲길이 펼쳐져 있다.

옛어른들의 푸른 정기를 느끼며 잠시 왕후나 된 듯 걸을 걸이를 조심하며 여유롭게 걷다보면 멋스런 연못 부용지(芙蓉池)가 나온다. 부용지에는 수련이 떠있고 봉어나 잉어가 많은데 임금님이 낚시나 뱃놀이를 하던 곳이라 한다. 부용지에 오면 어른이나 아이나 잉어에게 먹이를 주느라 마음을 빼앗기곤 한다. 부용지에 비친 부용정(芙蓉亭)의 모습은 마치 한송이 연꽃 같다.

부용정에서 마주 보이는 언덕에 있는 것이 주합루이다. 주합루는 왕실 도서관으로 과거에 급제한 인재가 책을 읽던 곳이다. 그 아래 정문은 어수문이다. 물고기기가 좋은 물을 만나는 곳이라는 뜻을 한번 다시 새겨본다. 부용지의 동쪽에 있는 영화당은, 22대 정조때부터 과거장으로 사용

되었다. 영화당에는 시관이 앉고 그 앞 춘당대에는 응시자들이 자리잡고 앉아서 과거를 보았다고 한다.

춘당대의 너른 잔디밭을 보노라니 옛 과거장의 모습이 떠오르는 듯하다. 어느새 불로문(不老門) 앞에 다다랐다. 모두들 늙음을 물리치려는 듯 불로문을 앞다투어 지나려 애쓰는 모습이 오히려 인간다워 보인다. 불로장생의 소망을 실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이 불로문을 새웠으리라. 독서열람실이었던 회우정, 재월광풍관, 임금님이 친히 남시어 책을 읽었던 기오헌과 의두각의 소박한 모습이 마음속 깊이 자리한다. 왕비가 직접 누에를 쳐서 부녀자들에게 모범을 보였다는 선향각도 눈여겨 볼 만하다.

옛어른들은 좋은 자리에 연못을 만들고 정자를 세워서 풍류를 즐겼다고 한다. 앞의 부용지, 반도지, 애련지도 인간의 자연과의 동화를 느끼게 하는 비원의 돋보임이다.

비원에서 특이한 건물은 연경당이라 할 수 있다. 연경당은 순조 28년 당시 사대부의 집을 모방하여 궁안에 지은 유일한 민가형식의 건물이기 때문이다. 사랑채, 안채, 반딧간, 서재, 정자와 행랑채로 이루어져 있는 통칭 99칸집으로 임금님은 민간의 생활을 알기 위해 가끔 이 집에 남시었는데 이 집은 우리의 주택사와 생활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고 한다. 연경당에 있는 선향채 앞에서도 쉽게 걸음을 떼지 못하게 한다. 선향채는 독서와 서고를 겸한 건물인데 서쪽을 마주보고 있어 비바람이나 석양별을 피하던 구조였고 건물밖으로 차양시설인 사랑(斜廊)이 독특하다. 기름종이를 바른 차양막은 고매에 걸린 끈으로 잡아당겨 열고 닫게 하였으며 사랑의 지붕은 청동으로 만든 판을 비늘처럼 박아 비바람에 견디게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옛어른들의 백사랑과 지혜로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연경당을 나와 숲길을 따라 가다보면 인조때(1936년)만 들어진 옥류천에 다다르게 된다. 계곡사이엔 청의정, 소요정, 태극정, 취한정 등의 정자를 배치한 풍류가 멋스럽다. 긴 나들이 길에 잠시 쉬며 시원한 샘물의 맛과 시 한수의 어우러짐이 느껴진다. 계곡 가운데 묵직히 자리잡은 바위가 소요암이다. 소요암에 새겨진 ‘옥류천’이라는 글씨는 인조임금의 글씨이고 그 위에 새겨진 시는 숙종임금의 시다. 임금님이 마셨다는 어정(御井)도 남아있다. 옥류천에서 여유로움을 가질 새도 없이 안내원을 따라 다시 나와야 되는 것이 무척 아쉬웠다. 비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간제로 구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란 생각에 안타까울 뿐이었다.

지금 부르고 있는 비원이라는 이름은 한일합방후에 나온 것으로 일본인들이 ‘비밀스러운 곳’이라는 뜻으로 비원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후원, 복원, 금원이라 불렀다니 우리도 이제는 비원이라 부르지 말고 ‘후원’이라고 불러보면 어떨까요? 

남의 나라에서 살면 겨울이 쓸쓸한 법인데 이번 겨울엔 우리 쌀이 개방되었다는 소식마저 날아 들었다. 여지껏 배부르던 자들이 자신의 배를 계속 불리겠다고 고안해낸 UR이란 괴물이 내걸고 있는 명분은 단순 명확하다. 자유무역을 통해서 지구의 소비자들에게 가장 싸고 좋은 물건을 쓰게 한다는 것이다. 300원짜리가 100원짜리보다 비싸다는 건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의 얘기들도 다 알거늘 100원짜리 미국쌀을 두고서 300원짜리 조선쌀을 먹겠다니 얼마나 멍청한 짓이냐는 것이다.

그러나 '싼 것'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나? 며칠을 두고 자동차로 달려도 끝이 없는 땅덩이에 사람이 어쩔 것도 없이 비행기로 씨뿌리고 농약뿌리고 제초제 홀홀 뿌려 탱크같은 기계로 우두두둑 잘라낸 후에 다시 한번 농약으로 단단히 포장해 놓은 쌀이 값싸다는 미국쌀이다. 값싸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걸 파는 자에게 충분한 이익이 된다는 뜻이다. 소에게 온갖 주사를 찌르다가도 소에게 고전음악을 들려주고 사람도 못먹는 곡식을 먹이는 불경죄를 저지르곤, 고기값이 싸질 우려가 있다하면 소의 생목숨이야 가차없이 폐기되어 사람이 못먹도록 땅속에 매장되는게 '싸다'는 진짜 의미이다.

이렇게 탄생된 값싼 것들 앞에서 '비선진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많은 일들은 우둔한 짓으로 전락되었다. 그들의 생활방법과 생활감정은 비효율적, 비위생적 혹은 비과학적이란 수식어가 붙어 모두 개발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장미가 가장 싸고 좋으니 세계의 꽃바구니엔 모두 장미만을 찾으라고 강요하는 꼴이다. 아무튼 선진국 13%의 인간들은 지구 전체 부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싸고 좋은 것을 그리도 잔뜩 차지한 그들은 오늘날 얼마큼이나 행복할까.

우리나라의 체제와 정치는 물론 선량한 사람들도 부러워하고 동구와 소

부루세라가 판치는 세상 일본인들의 불꽃놀이

유 소 립 회원, 일본거주

련에겐 선망의 대상인 일본, EC와 미국은 이 일본에게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면서도 '유교자본주의'라는 말을 만들어낸만큼 일본인들의 비결이 궁금한 모양인데 그 일본에 와보니 '부루세라'라는 이상한 말이 있다.

세라란 여고생을 말하고 부루란 속내의를 뜻하는 것으로 여고생들이 입었던 속옷인 부루세라가 신종보다 비싼 값에 팔리고(최근엔 부루세라 자동 판매기까지 등장했다). 부루세라 오지상이라 하여 여고생들과 데이트를 할

수 있는 클럽에 가입하는 중년남성들이 꽤 있는 모양이다. 가족대여업소에서 딸이나 손녀를 빌리는 노인도 있고 디스코장에 출입하고 새 옷을 사기 위해 몸을 파는 여고생도 있다.

그래, 이들은 모두 외로운 것이다. 미국과 서구의 외로운 사람들이 동양권에 매력을 느끼기도 한단데 최선진국 일본은 이미 동양도 아닌 모양이다. 한 사회의 평가기준이 GNP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인간관계라면 소위 선진국들은 과연 몇등국이나 될까. 이들은 그야말로 가진 것이라곤 돈밖에 없는 선세가 된 것 같다.

사람이 먹고 산다는 일은 애초부터 숫자로 계산하여 비싸다든지 싸다든지 하는 형용사를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은 '싸게 먹기' 위해 먹는 게 아니잖은가. 사람은 살기 위해 먹는다.

제가 밭 딛고 사는 흙 — 아득한 때 거기에서 생겨난 그 흙에 씨앗을 묻고 해와 바람과 비의 은총으로 곡식을 얻으면 위로는 하늘과 조상에게 고마와 하여 첫곡식을 바치고 아래로는 외양간의 소에게도 노고를 감사하여 대보름날 오곡밥 한덩이 먹이고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가 둘러앉아 누룽지 끓여먹고 송충이까지 마시는 게 우리네의 쌀이었고 우리네의 사는 일이었다.

지구는 이제 그야말로 자본주의로 통일된 한동네가 되었다. 그 많은 소련인과 중국인, 동구인들이 한가지로 달려들어 자본주의 수법을 배우겠다고 기를 쓰고 있다. 이지경에 지구를 돌보는 일이 중요하다거나 값싼 쌀이 사실은 값싼 게 아니라는 목소리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들린다.

일본인들은 불꽃놀이를 좋아한다. 지리한 장마가 끝나면 여기저기서 불꽃놀이가 시작된다. 그러나 별들과 반딧불이 사라진 하늘아래서 한순간이면 꺼지고 마는 화공약품의 황홀함에 사람들은 언제까지 혼이 빠져 있을 것인지, 도대체 언제까지나 황홀함에 빠져 있을 수나 있는지, 문제는 쌀이 아니다. 쌀만이 아니다. 

멀티미디어 시대를 준비한다

— 컴퓨터 구입을 위한 안내

손 은 미 회원, 한국정보서비스 교육실장

위 드프로세서로 들어가기 전에 이번호에서는 회원 여러분들이 컴퓨터(PC)를 구입할 경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구입할 때 알아둘 필요가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과 현재 PC의 동향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먼저 컴퓨터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각 장치들에 대해 알아본다.

본체

하드웨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부에는 컴퓨터에 입력된 내용을 계산, 출력하고 그외의 장치들을 움직일 수 있는 중앙처리장치(CPU)를 포함해서 입력된 내용을 일시 보관하는 기억장치(주기억 장치 또는 기본 메모리) 등이 들어있다.

컴퓨터를 구입할 때 386이니 486이니 하는 것이 CPU를 가리키는 80386, 80486이라는 반도체의 이름이고, 640KB, 2MB, 4MB 메모리라 말하는 것들은 주기억장치를 가리키는 것이다. 외부로는 전원을 넣는 스위치와 디스크에 내용을 기록하거나 읽을 수 있는 장치인 디스크 드라이브(HDD, FDD) 등을 볼 수 있으며 단단한 케이스로 싸여있다.

키보드(Keyboard)

키보드는 입력을 하는 장치로 주로 글자나 숫자를 입력하는 작업에 이용되며 실제로 글꼴(워드프로세서)을 다루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치이다. 키보드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84키(86키) 키보드 : 키보드의 글쇠의 수가 모두 84개이며 우리나라에 있는 [한/영]글쇠와 [한자] 글쇠를 포함해서 86키 키보드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키보드의 특징은 기능키들이 키보드 왼쪽에 있다는 것이다.

101키(103키) 키보드: 키보드의 글쇠의 수가 모두 101개이며, 자판의 특징은 기능키가 자판의 윗쪽에 배열되어 있다는 점이다.

마우스(Mouse)

마우스는 키보드 대신에 이용되긴 하지만 커서의 위치 설정이나 불특정점 등의 한정된 작업만을 할 수 있다. 마우스를 이용하면 쉽게 커서를 이동할 수 있고 굳이 방향키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마우스를 본체에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우스의 움직임을 알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마우스 구동 프로그램)이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

모니터(Monitor)

모니터는 컴퓨터에 입력된 내용을 화면에 보여주는 장치로 여러 색을 보여줄 수 있는 칼라모니터(Color Monitor)와 검은색과 흰색만을 보여주는 단색모니터(Mono Monitor)가 있다. 모니터는 크기가 다양하여 원하는 취향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다. IBM PC 호환기종에서 모니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디오카드(Video Card)를 써야 하며, 이 비디오카드가 모니터를 지원할 수 있어야만 제대로 화면이 보인다.

비디오카드(Video Card)

비디오카드는 모니터의 어느 곳에 어떤 색상의 빛을 발사하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이들을 제어하는 장치다. 이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단색인가 컬러인가 또는 컬러라면 몇가지 색을 나타낼 수 있는가? 화면에서 얼마나 선명하게 나타내어 줄 수 있는가가 결정된다.

현재 대부분의 PC에서는 VGA 또는 SVGA(Super VGA) 비디오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디스크드라이브/하드디스크

전원을 끄면 사라지게 되는 주기억장치의 내용들을 기록해 두거나, 읽을 수 있게 해주는 장치로 크기 3.5인치, 5.25인치 등의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FDD)와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가 있으며, 구입할 PC의 FDD와 하드디스크의 용량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단지 읽기만 할 수 있지만 대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CD-ROM 드라이브가 멀티미디어의 구현을 위해 많이 이용되고 있다.

프린터(Printer)

출력장치로, 모니터가 화면출력을 하는 반면 프린터는 종이와 같은 매체에 출력을 한다. 프린터도 어떤 것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출력의 질이 다르며, 크게 도트, 잉크젯, 레이저 프린터 등이 있다.

모뎀(Modem)

컴퓨터를 이용해 통신을 할 때 필요한 주변기기로, 전화를 타고 온 신호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신호로 바꾸어주는 장치로 요즘 많이 이용되고 있는 하이텔이나 천리안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모뎀을 PC에 장착시켜야 한다.

이러한 모뎀은 전송 속도로 그 성능을 대부분 평가하게

되는데 2400BPS(Bits Per Sec.), 4800BPS, 9600BPS가 주로 사용되며, 숫자가 클수록 빠른 전송속도를 가지므로 가격이 비싸다.

사운드카드(Sound Card)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스피커로 낼 수 없는 소리들을 만들 수 있는 장치이다. 사운드카드에는 내부에 장치하는 것으로 옥소리, 사운드 블러스터 등이 있으며, 이를 이용해서 가요방, 작곡, 편곡을 하거나 게임에서 효과음을 내기도 한다.

이제는 이러한 각 장치들로 구성되는 PC의 현재 동향과 가격에 대해 알아보겠다.

PC는 286AT→386SX/DX→486SX와 같은 형태로 변화, 발전되어 왔으나 현재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요구하게 되는 GUI(Graphic User Interface :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과 멀티미디어의 구현을 위해서는 기존의 프로그램에 비해 훨씬 용량이 크고 복잡한 하드웨어 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제부터 PC를 구입하려는 사용자라면 386시스템보다는 바로 탁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486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것이다.

실제 요즘 가장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IBM PC의 GUI 프로그램인 윈도우즈(Windows)는 80년대말까지 3~4년씩이나 걸리던 PC의 라이프 사이클(한 모델이 사용된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시켰다. 즉 PC의 발전 형태를 주도해 온 주역이 윈도우즈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이 윈도우즈라는 환경하에서 실행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될 것이며, 이미 그러한 추세에 접어들었다.

물론 386급 PC에서도 현재의 윈도우즈와 윈도우즈용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현재의 추세라면 이제 PC용 프로그램은 계속 대용량, 고속처리의 하드웨어 환경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미 멀티미디어용 프로그램들과 Windows NT버전이 소개됨에 따라 486급 PC를 구비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새로이 PC를 구입하는 사용자라면 나는 이 정도의 프로그램만을 이용할텐데...라는 생각으로 기존의 286, 386을 구입할 경우 물론 현재의 활용자세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PC의 활용이라 함은 제공되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곧 일반화될 486급 PC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486DX 시스템 역시 처리속도와 구성형태에 따라 몇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예년과 같은 가격인하 추세라면 94년 486DX급 PC의 소비자 가격은 현재 486SX급 수준인 160만~180만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는 이미 잘 알려진 회사들의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고 전자상가의 조립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정품의 S/W제공과 이후 A/S가 보다 쉬운 반면 조립품보다 약간 가격이 비싸고(같은 사양인 경우) 후자는 사용자가 사양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고 가격이 조금 저렴한 대신 정품 S/W의 제공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일장일단이 있으므로 구입자의 상황과 편의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 같다. 단 컴퓨터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사용자가 구입하는 경우라면 앞에서 제시한 하드웨어의 각 구성항목에 대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PC구입시 대부분 제시하게 되는 일반사양과 사양에 따른 486DX급의 대략적인 현재 가격을 제시하고자 한다.

■PC구입의 일반적 사양

- ▶모델명 : 486DX2-66
- ▶CPU : INTEL 486DX2-66MHz (CPU명, 처리속도)
- ▶RAM : 4MB(기본메모리 크기)
- ▶VIDEO : VESA LOCAL BUS VIDEO(VIDEO MEMORY 1MB) (Data 처리방식 및 비디오 메모리 크기)
- ▶FDD : 3.5" 1.44MB, 5.25" 1.2MB
- ▶HDD : 120MB
- ▶POWER : 230W, 110-120/220-240 VAC(전원)
- ▶KBD : 103 Keyboard
- ▶MOUSE : BALL MOUSE
- ▶MONITER : 14" COLOR MONITER
- ▶SIZE : MINI TOWER(DESK형도 있음)
- ▶MODEM : 4800BPS 내장형(경우에 따라선 선택사항일수도 있음)
- ▶기타 액세서리 : 보안경, 디스켓, 디스켓보관함 등

■현재 가격동향

- 486DX×33MHz VESA System : 1,800,000원 정도
- 486DX×33MHz No VESA System : 1,600,000원 정도
- 486DX×66MHz VESA System : 2,000,000원 정도
- 486DX×66MHz No VESA System : 1,800,000원 정도

이 가격은 대략적인 것이며, 위의 기본사양 중 CPU만 달라졌을 경우로 상정한 것이다. 따라서 하드디스크의 용량을 더 크게 한다든지, 기본 메모리의 크기를 늘릴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씩 더 상승될 수 있다.

또 VESA(Video Electronics Standards Association)라고 하는 것은 주변장치와의 입·출력 속도를 보다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된 VESA Local Bus방식으로 멀티미디어 구현을 위해서는 대량의 다양한 자료가 처리되어야 하므로 보다 빠른 입·출력속도를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 

이야기마당/페미니즘 연극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를 보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갈만 하던가요?

최근 여성문화예술기획(대표 이해경)에서 기획, 공연중에 있는 연극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원작 공지영, 각색 전해성)는 소수 특징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현실에 발 딛고 사는 여성이면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솔직하게 잘 그려냈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연극을 보고,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느낀 바를 이야기해 보았다.

오숙희(여성인권위원장, 사회), 이미영(분당지역모임), 전해성(원작 각색자), 김현미(생협 근무), 정대은(「함께가는 여성」 편집위원) 회원이 함께 해 주었다. 감사드린다. — 편집자

오숙희 연극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를 보고 모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우선 각자 소개와 함께 자유롭게 느낀 점들을 얘기해 봅시다.

정대은 전 말그대로 평범한 사람입니다. 친정엄마의 성화에 밀리기도 했지만 남들 하는대로 안정도 찾고 싶고, 우리들 사회에서 갖추기를 요구하는 자격이랄까 그런 것도 갖고 싶어서 덜컥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놓고 보니 참 엄청난 일을 벌였다 싶더군요. 거기다 남편까지 여러가지 갈등을 겪고 있던 터라 결혼 초기에 마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오숙희 그 마음고생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정대은 보통사람들이 보기에 뒤바뀐 생활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정신없이 달려온 생활에서 벗어나 쉬면서 생각도 하고 공부할 기회를 갖고 싶어했고, 마침 제가 취직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내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저는 직장생활에 살림에 임신까지 하는 바람에 정말 힘들었지요.

모두 많이 쌓였겠네요.

정대은 그럼요. 남자란 당연히 생활전선에서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생각했었고, 때문에 남편을 많이 미워했지요. 그러다 민우회 생활을 하면서 많이 풀렸어요. 남자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된거죠.

오숙희 그래요. 남자들에게도 그렇게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미영씨는 '울산댁'이라고 들었는데요?

이미영 예, 남편 직장 때문에 울산으로 내려가 계속 살았었어요. 지금은 저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주말부부가 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결

혼에 대한 제 가치관은 참으로 관념적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일상적인 관점은 전혀 상관없이 사회에 대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운동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만 기준을 삼았었어요. 세속적인 잣대로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남자였는데도, 한편으로 제가 가진 이념을 이 남자를 통해서라면 관찰시킬 수 있겠다 싶어 결혼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러다 결혼 첫날밤 호텔방에서 아무 생각없이 양말을 벗어 던져 놓는 남편을 보고 이런 남자와 어떻게 사나 싶더라고요.(웃음)

오숙희 자기 집에서 하던대로 딱 벗어 던졌군요.

이미영 그렇죠. 실제 생활의 면에서는 가부장적인 남편의 전형이

정대은 극중에서 영선이가 "조금씩 양보하다보니 그렇게 됐다. 남편도 자신이 그렇게 양보받는 걸 몰랐을거다"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저도 남편과 싸울때마다 집안 조용한 게 제일인데 좀 참을걸 하는 반성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란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난 이렇다' 하고 보여주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이미영 해완과 경환의 부부싸움에서 예전일이 생각나 눈물이 많이 났어요. 아이가 죽은 후에도 해완이 웃고 잘지내려고 애쓴 뒷면에는 큰 아픔을 이기고 잘 해보려고 애쓰는 모습인데 남편은 자기본위의 생각으로 몰아부치기만 하잖아요.

있어요. 여자에게 대접받는 걸 당연지사로 여기는 건 물론이구요. 그렇지만 그런대로 참으며 살았는데 2년쯤 후에 제가 학교강사를 하게 되어 밖으로 나가려니까 잡혀들어 있던 문제들이 다 튀어나오더군요. 나중에 '아이나, 자기 일이나 둘 중의 하나를 택하라'는 식의 협박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흔히 하듯 다 잘해내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 몹시 지쳤고, 남편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는 못살겠다고, 남편은 오히려 더 빡나가기만 했고, 그런대로 애를 써보다가 작년쯤 폭발을 했지요. 엉엉 울고, 집어던지고, 남편 옷자락도 잡아당기고... 그렇게 몇시간 정신없이 울고나니까 남편이 조금 변하더군요.

오숙희 몇년만에 변한 겁니까?

이미영 6년만이지요. 그러나 그 일이 제게는 상처로 남았어요.

오숙희 김현미씨는 어떻습니까?

김현미 남편과는 기독교운동단체에서 일을 하다 만났어요. 착실해 보였고 사회의식도 갖고 일하는 사람이라 호감을 갖고 있다가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집안환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지금은 모르겠지만.

오숙희 눈에 뭐가 띄운 게지요. (웃음)

김현미 예. (웃음) 그런데 알고 보니 시할머니까지 계산 집안의 딸이었어요. 시동생과 시누이들도 있고, 그렇지만 조건 때문에 결혼 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 어느 사이 만매느리가 되었고 시집살이도 하게 되었지요.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하다가 임신하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림을 맡고 보니 신문 한 장 읽을 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는 친정에, 살림은 시어머니께 맡기고 민우회에 나오게 되었지요. 저 스스로가 여성문제에 관심을 하고 기회가 되면 여성신학까지도 공부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짐은 다른 여성인 어머님에게 떠맡겨 놓은 셈이 되어 많이 괴로웠어요.

오숙희 전해성씨는 각색자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전해성 저는 결혼한지 3년정도 됐습니다. 제 결혼의 특징은 남편이 절 많이 알게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억압당하는 걸 못견디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행동했어요. 같이 술도 마시고 거침없이 얘기하다보니 속속들이 파악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존중해주는 태도를 조금은 키운 셈입니다.

물론 결혼 후에 싸우기도 많이 했지요. 그 사람은 제가 결혼을 통해 어느정도는 변하리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왜 변해야 하나고 고집을 부렸었지요. 시부모님의 세세한 걱정에도 견디기 힘들어했고, 괜한 자격지심 때문인지 시집에서 무슨 피해를 당할까봐 전전긍긍하기도 했습니다. 별 큰일없이 잘 대해주시는 편이었는데도 안 변하겠다고 고집을 많이 부린 편입니다.

오숙희 완전 무공해여성이시네요.

모두 웃음

전해성 아까 싸운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결혼 첫날부터 싸웠어요. 폐백때 친정부모님도 함께 절을 받으시게 하자고 남편과 약속을 했



었는데, 남편은 그걸 자기 집에서 얘기할 수가 없었나봐요. 제게는 포용력도 있고 성격도 넓으면서 막내다보니 집안에서의 결정권이 없었던 거지요. 그럴 의지를 발휘할 수 없었다고 하는 편이 나올까요?

오숙희 핵심을 놓쳤군요. 모든 일이 그렇듯이.

전해성 어쨌든 결혼 후 시집과의 관계에서나 남편과의 일에서나 절 그대로 보여주는 태도덕에 무난히 지낸 편입니다.

오숙희 이제 연극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볼까요? 저는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감한 시기에서 해완, 영선, 경혜 이 세여자의 인생을 보면서 모두에게 부분부분 공감을 했습니다. 해완의 경우에는 이혼 후 주변에서 보는 시각, 이혼 후 겪는 고통에 대해 어느정도 공감을 했고, 영선에게서는 '그래도 참고 살았더라면' 하는 마음자세를 보았는데 특히 이런 모습은 모든 여성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해요. 일은 남자들이 저질러놓고 해결은 여자들이 하는 역할분담이 참 두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런 자세가 타고난 것인지 교육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인이 어디에 있건 내가 택한 결혼생활이니 끝까지 내가 참고 유지해 나가야겠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선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차라리 이혼을 하지 저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살다 죽으면 동정이라도 받지만 이혼하면 안 참은 독한 여자가 되어버리는 현실에 갈등을 겪게 됩니다. 경혜의 경우 사실 우리가 가장 경멸하기 쉬운 대상이고, 저 역시 이혼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입장이었을텐데 지금은 결국은 참고 살기도 힘들고 이혼도 감당하기 힘들다면 남아 있는 대안은 경혜식이 아닐까 싶어요. 사는 동안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자기 상처 덜 받고 살아가는 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측은하고 애처로웠구요.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의 경혜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추악한 속물근성, 허세, 자식과 남편을 도구화하는 것. 애정없이 결혼 자체만을 지속시키려는 조강지처 근성 등을 아픔으로 재인식하면서 끌어안는 모습을 경혜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경험에 따라 공감을 느끼는 대상이 다를텐데, 정대은씨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연극을 보시고 어땠습니까?

정대은 굳이 한 사람을 고르라면 '영선'이지요. 극중에서 해완이 '그렇게 살려거든 이혼을 하지' 하고 비난하자 영선은 '조금씩 양보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남편도 자신이 그렇게 양보받는 걸 몰랐을

꺼다. 큰 것이었다면 남편도 미안해 했을텐데' 하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이 마음에 많이 와 닿았어요.

오숙희 조금씩 양보하다보니 비랑글에 온거지요.

정대는 결혼초 순종형의 제가 반기를 들고 나선 후로 남편과 참 많이 싸우면서 내내 들은 소리가 세상여자들은 다 가만있는데 유난을 떠다, 독하다, 고집세다 하는 것이었는데 돌아앉아 생각하면 좀 참을 걸, 집안 조용한 게 제일인데 하는 반성을 순간순간 했었거든요. 영선일 보고 나니 그게 아니었구나 처음부터 난 이렇다 하고 보여줬어야 하는데 했지요. 그래서 전해성씨가 참 현명했구나 싶습니다.

전해성 전 오히려 지나쳐서 남편이 저 사람에게 밥이나 얻어 먹었나 했대요.

오숙희 기대치를 아주 낮췄거든요. 이미영씨는요?

이미영 오숙희씨처럼 새여자 모두에게 어느 정도씩 공감을 했습니다. 아이 양육부분에서는 해완의 경우에서 많은 걸 느꼈지요. 아이가 부담스럽고 짐덩어리같다는 느낌, 또 그렇게 느끼는 나를 엄마자격이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경우를 경험하고 보니 연극에서 똑같이 표현하는 것을 봤을 때 공감이 갔어요. 그전까지는 공감을 구하려고 애기를 꺼냈다가 같은 여성들조차 이해해주기는 커녕 처럼 엄마가 있나 하는 반응을 보여 마음이 많이 아팠었거든요. 미화된 모성이 아닌 나를 찾고 싶다는 의지가 해완을 통해 정당화되어 나타난 것 같아 반가웠어요. 그후 3, 4년 지난 다음엔 영선의 모습을 거쳤지요. 박사과정을 마치면 제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남편이 막상 그 시기가 오니까 많이 달라지더군요. '네가 이제 와서 뭘 하겠니?' 하며 영선 남편의 반응과 똑같았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남편은 부정적인 반응과 함께 아이문제를 들먹거리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오숙희 약속을 어긴다는 사실을 인정 못한 거겠지요.

이미영 네, 그후로는 남편과는 상관없이 내 의지대로 뭔가를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저 '울타리'의 역할로 많이 전락되어가는 서글픔도 맛보았고 그러다보니 경혜의 입장도 이해가 가더군요. 지난번 우리 분당지역모임에서 같은 주제를 놓고 토론을 했었는데 주부들이 가장 동일시하는 인물이 경혜였어요. 울타리로서만 존재하는 남편과 그속에서 느끼는 자기 모멸감에 대한 것이지요. 자아실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우울증은 오히려 둘째고 형식적인 부부사이에서 오는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오는 우울증이 더 많다고 하더군요. 서로 많이 위안들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김현미 저는 아이를 맡겨놓고 다니는 입장이니 당연히 해완에게 마음이 많이 달았고, 주위의 상황 때문에 내것을 조금씩 포기해가는 모습에서는 영선과 비슷함을 느꼈어요. 그렇지만 영선이 남편을 사

랑한다면 사랑하는 이를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어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 아닐까요?

오숙희 그래요. 내가 널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의 표현일 뿐이지요.

김현미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도 배워야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일을 하면서든, 가정 일에 충실하면서든 좀 더 다각적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생각했다라면 목숨을 거는 극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요.

오숙희 전해성씨는 각색을 하시면서, 연극에서 나오는 남자의 모습 특별히 이상하다기 보다는 보편적이고 우리의 상황이 허용하고 만들어가는 남성의 모습을 어떻게 보이려고 하셨는지요?

전해성 원작을 각색하면서 우선 염두에 두었던 것은 남자들을 무조건 적으로 몰지 않아야겠다는 점이었어요. 그렇지만 모든 인물에게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부여한다면 극의 의미가 없는 것이구요. 그래서 여성들이 가치관과 틀린 경우와 아예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된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경환의 경우 이혼후 해완의 최상으로 떠오르는 모습이 대부분이어서 항상 최악의 상태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경환과 해완이 캠퍼스 커플이었고 인간적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서로 동등한 경험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실제 결혼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해결해 나갈 힘이 없었던 것이지요. 아이가 생기고 해완은 점차 초조해지고 경환은 그런

김현미 저는 해완의 아픔이 이혼으로써 모든걸 정리시키지 못했다고 봐요. 하지만 혼자서 살아가는 해완의 모습에서 자신을 잃지않고 살아가려는 삶의 진실을 느꼈습니다. 전 여성문제란 우리 사회의 병든 모습이라 생각해요. 이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전해성 각색을 하면서 염두에 두었던 것은 남자들을 적으로 몰지 않아야겠다는 점이었어요. 앞으로는 파격적인 변화를 주는 실험을 하고 싶어요. 다양한 삶의 형태를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숙희 참고 살기도 힘들고 이혼도 감당하기 어렵다면 대안은 경혜식이 아닐까 싶어요. 사는 동안 현실을 냉정히 인정하고 자기 상처 덜 받고 살아가는 경혜가 측은하고 애처로웠습니다.

해완에게 나름대로 적절한 대답, 즉 아이 키워놓고 보자는 말을 했지만 먹혀들지 않았지요.

저는 경환과 해완의 이혼이 반드시 아이문제나 서로 이기심 싸움에서가 아닌 보다 큰 줄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때문으로 보이고 싶었는데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오숙희 아이가 죽은 후 해완이 무척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경환은 내가 사람이나고 맞서는데, 이 때 경환의 마음은 사실 아이를 죽인 여자라는 구체적인 생각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여자라는 관념에 해완이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받은 것 같어요. 해완은 또 속으로 갖고 있는 깊은 상처를 경환이 이해해주지 않으니 고통스럽고 이렇게 부부가 서로에게 잔인해가면서 결국은 필연적으로 이혼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요.

전해성 그렇게 일이 진행되면서 겪게 되는 깊은 속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들이 잘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오숙희 마지막 장면에서 경환이 재혼한다고 해완이 밝게 웃으며 얘기하는 점도 이혼을 통해 결혼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터득하고 재도전하는 것을 배웠다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사실 둘이 재결합하는 해피엔딩을 바라기도 했지만... (웃음)

너무 무거운 얘기가 많았나요? 그 언급 보면서 안우셨어요?

정대는 많이 울었죠. 우선 아이에 관한 대목에서는 애엄마니까 자동적으로 울음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는 아까 얘기했듯 영선이 하나 하나 양보하다보니 이혼이 됐더라 하는, 벅장글에 내몰린 그 심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몹시 저렸어요. 이혼해 홀로 설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자신을 포기한 삶을 살 수도 없는 대부분 여성들이 갖는 무력감이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김현미 저는 출근하기 위해 해완이가 아이와 길가에 같이 나와 있다가 아이를 돌보는 아줌마를 보자 아이를 두고 오는 버스를 타려고 하고 아이는 엄마인 해완이를 쫓아가려다 그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저도 엄마로서 그 부분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 사고로 아이가 죽고 해완이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남편과의 갈등은 결국 이혼을 불렀고 그러나 그 아픔은 이혼으로써 모든걸 정리시키지 못했다고 봐요. 하지만 혼자서 살아가는 해완이의 모습에서 해완이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는 삶의 진실성을 느꼈습니다.

이미영 저는 주책맞게 처음부터 울었어요. 영선이 자살을 기도했다고 전화하는 장면 후에 스크린에 세사람의 학창시절이 나왔는데 그 스크린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나도 저렇게 꿈도 많고, 야망도 많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현재의 나를 돌아보니 초라해보이고, 대학시절의 나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코미디영화를 보던 해완과 경환이 싸우는 장면에서 울음이 폭발했는데,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울산 살 때 부산지역여성연구회에서 논문심사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 하필 그날 아이가 몹시 아팠어요. 결국 남편이 아이와 남았지만 속으로 저여자가 엄마야 하는 비난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일이 꼬이느라 논문심사 후 사람들에게 이끌려 2차, 3차를 가야 했고 그때의 심정은 즐거운 게 아니라 아예 가시방석이었어요. 이때문에 코미디프록을 보는 해완의 실제 속내를 동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일로 12시에 귀가를 했고, 결국 남편은 뺨을 한대 때리더라구요. 남편은 나를 아픈 아이까지 내던지고 저혼자 잘먹고 잘누다 들어온 여자로 봤던 거지요.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대 맞았지만 이제 아난데 하는 생각이 먼저 강하게 들었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 뛰어왔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예를 테리고 애때운 것만 애길 하면서 네가 인간이냐고 하고... 해완과 경환의 부부싸움에서 예전 일이 되살아나 눈물이 많이 나왔어요.

해완이 웃고 잘 지내려고 애쓴 그 뒷면에는 큰 아픔을 이기고 잘 해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는데 남편은 자기본위의 생각으로 몰아부치기만 하잖아요.

모두 울먹울먹

오숙희 저는 영선이 해완에게 하소연하는 대목에서 눈물이 많이 났어요. 너무 외로워서 침대보도 갈고 야한 속옷을 입고 웃으며 남편을 맞이했더니 그런 거 여성지에서 배웠냐고 하던 그런 모욕적인 소릴 듣고도 외로워 죽겠으니 한번만 안아달라고 남편에게 매달렸다고 얘기하면서 옷 앞자락을 쥐어뜯는데 눈물이 몹시 나더군요. 얼마나 외로웠으면 저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구요.

그러면 끝으로 주로 30, 40대 주부가 많은 민우회 회원들에게 제안할 수 있는 삶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지요.

이미영 주부라는 위치에 대해 교과서적인 인식만을 가졌었어요. 그러나 여성모임을 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나름대로의



눈물겨운 노력도 보고, 나 스스로가 부정적이었구나 하는 반성도 했습니다. 조직속에서 같이 협동해서 활동하는 주부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다면, 좀 더 욕심을 낸다면 경제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면 한결 희망적이겠지요. 또 한가지는 주부들 스스로가 자신을 너무 묶어버리려 한다는 점이에요. 자신의 틀을 깨고 투자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세워 나가는게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현미 저는 사회에 많은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여성문제란 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문제인데 다들 도외시해요.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정대는 연극을 보고 난 후 제 가정을 비롯 모든 가정이 문제가 제기될 소지는 잠재되어 있긴 드러나 있긴 항상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부한 얘기같지만 결국은 부부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 틀린 방향을 고쳐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민우회에서 누군가가 나를 집안에서 끌어내 주었듯이 나 역시 그래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전해성 저는 역시 글쓰는 일에 열중해야겠지요. 앞으로는 좀 더 강하게 목적성을 띤 연극대본을 쓰고 싶습니다. 연극에서는 많은 잠재된 욕망을 보편적으로 공감해 주는 것 외에도 과격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실험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남자를 무조건 적대시 한다든지, 결혼거부, 이혼주장, 간통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삶의 형태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오숙희 유익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서로 공유한 부분이 많은 만큼 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긴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기는 커녕 갈등도 모르는 부부

조 정 하 「함께가는여성」 편집위원

“결혼 생활에 위기가 있었다면요?”
너무도 가당찮은 질문이라는 듯 어색한 조류가 흘렀다.

“뭐, 그런 적 있었나?” 북 내뿜는 남편 우원식씨의 한마디에 곁들여 “글쎄, 우리 뭐 그런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라는 신경혜회원.

“요즘 유행하는 공지영씨 소설을 보면 30대 부부의 갈등이나 위기가 결코 특수한 몇몇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논리라 한번 여쭙보았는데, 글쎄 두분한테 너무 터무니없는 질문이었나 봅니다.”

형식적인 대화가 아니었다. 4시간 가까이 신경혜회원집에 머무는 동안 이미 잔잔히 배어버린, 그들의 서로에 대한 호감함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신경혜회원이 민우회와 인연을 맺은 것은 92년초, 당시 총선에서 한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던 그녀는, 그 경험을 토대로 노원-도봉 민우회 회원들과 ‘노원구 지역의 특징’에 대해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맺어진 인연은 92년 가을 생협 공동체활동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댈레야 댈 수 없는 민우회 회원이 되고 말았다. 지난해 1월 지역 운영 위원으로 한발을 깊숙히 담그었고, 새해 들어서는 노원지역 대표로 추천된 것이 바로 그것. 짝짝한 말솜씨와 마음속 깊이 상대방을 끌어안는 그녀의 포용력은 감히 어느 누가 넘볼 수 없는 그녀만의 장점이고 더불어 노원지역에 민우회의 뿌리를 굳건히 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귀한 재목임을 느끼게 한다.

그녀의 애뉘는 남편이기 이전에 동지이길래 더욱 소중한 남편 우원식씨는 지금 노원구 국회의원의 입재정씨의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70~80년대 민주화운동에 헌신적으로 뛰어들고 지금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 사람치고 경제적인 안정을 갖추기란 참으로 어려운 과제. 우원식-신경혜 부부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결혼생활 10여년에 이르는 동안 우원식씨가 경제생활을 책임진 것은 최근 2~3년. 보좌관으로 일하게 되면서 일정정도 고정수입을 갖게 된 이후라고.

“아니,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말도 못했죠. 신혼초 한 3년간은 시댁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먹고 사는 데는 신경을 안써도 됐었지만 그래도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속고생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때 큰애를 가졌었고...”

“그때는 정말 저도 많이 괴로웠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이

를 가졌는데 남편으로서 뭇가는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당시 TV광고중에 임신한 아내의 빈혈치료를 위해 채로바 —, 하는 선전이 있었어요. 요즘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채로바가 4,000원인가 하고 채로이 5,000원인가 했었는데 그거를 사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고민고민하다가 어느날 어떻게 해서 4,000원이 생겨서 제가 채로바인지 채로인지 1,000원 더 싼 걸 사다준 적이 있습니다.”

채로바인지 채로인지 서로에 대한 애정도 가끔은 물질로 표현해야만 하는 고

통. 뜻이 있어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 부부에게 그것은 또한 얼마나 고통이었을까?

시댁에서 분가를 한 후 신경혜회원은 생활비를 벌기 위한 방편으로 기독교방송국에서 실시하는 탁아모교육을 6개월간 수료하고 자격증을 따다. 월계동 20여평 아파트에 아침 7시 30분이면 들어서는 아이들. 부모의 출근시간과 일치하기 때문. 그 시간부터 신경혜회원은 생활비를 벌기 위한 전투를 시작한다.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위안’ 하나로 아침, 점심, 저녁 세끼 밥을 해먹이고 또 간식을 해주며 오로지 버티었다. 보육교사 한명과 함께 했던 3년여 놀이방시절은 정말 힘들었다고. 그러나 아이들을 좋아하는 성격은 지금도 변함이 없었다.

“부부가 함께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 가장 힘든 점이 바로 아이들 양육문제라고 하는데요, 자녀들에 대한 교육관이라면요? 사실 저희 민우회회원들의 경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무척 크거든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일에 대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오히려 부모의 입장에서는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밖의 일로 바쁜 탓도 있지만 그런 생각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게 한결 살찌운다고 생각해요. 우리 진희(큰아이)도 엄마가 밖에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혼자서도 자기 생활을 잘 추스려요. 사과도 이렇게 혼자서 잘 깎아먹고...”

“진희가 한번 얘기해 보지. 진희 생각은 어때?”

우원식씨의 다정한 말에 감아먹듯 칼로 사과를 깎고 있던 진희는 “... 엄마가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다.

“우리 진희가 말은 이렇게 해두요 엄마가 바깥일 해야 된다는 걸 다 이해해요.” 엄마의 다정한 눈빛을 느끼며 그러



말 진희, 아들 도희와 함께, 남편 우원식씨는 도희를 인종지 승리를 뜻하는 민승이라고 부른다고...



나, "...엄마가요 그래도 그냥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저주저 한번 마음을 털어놓으니 진희는 드디어 울먹울먹 눈물을 보이고 만다.

"신경혜선생님, 가슴 아프셔서 어떡해요?..."

그래도 어쩌랴. 우리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가슴아픈 일이 어디 이뿐이라. 넘고 또 넘어야 할 산이 까마득하다. 나의 실현 이전에 사회에서 요구되는 일을 하기 위한 최소한을 위해서도 한국여성들이 감당해 나갈 육아문제는 이리도 가슴아프다.

남들보다 결코 나은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도 이들 부부의 삶이 빛나 보이는 것은 어려움속에서도 사랑을 평등하게 가꾸고 서로의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신념이다. 우리 사회 더욱 아름다운 부부로 우뚝 서길 바라며 남편 우원식씨에게 물어보았다.

"자기 의지하고는 무관하게 자기를 실현할 수 없는 사회, 그리고 곳곳이 존재하는 폭력문화 등 한국사회가 이렇게 파

행적으로 걸어가게 된 근본모순이라면요?"

"분단이죠. 분단의 질곡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고 봅니다. 남한사회에 있어서 일제잔재가 청산되지 못하고 군사정권이 들어선 것도 다 분단때문이지요. 통일이야말로 이런 파행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히 타협하며 전망을 보지 못하고, 알아서 소신을 꺾고 미리 기는 우리 사회의 병들어 있는 모습들이 이들을 보면서 말끔히 해소되는 기분이었다. 이들 부부의 다정함이 시샘이 나 낯곳은 마음으로 서로의 단점을 물어보았다.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어디가면 전혀 연락을 하지 않는 점이 마땅찮다는 신경혜회원과 바깥일이 많아지면서 집안일을 아무래도 소홀히 하는 점이 아쉽다는 우원식씨를 보면서 이점만은 어느 보통 부부와 다를 바 없구나 그러나 바로 이 점이, 신경혜회원이 조직가로서 탁월한 활동력을 보이는 동력이란 생각에 기분은 유쾌하기만 하였다. 

우리직장 이야기

불길도 헤치고 물길도 헤치고 ... 참새의 하루

정 경 숙 회원 (사무직 신입소모임)

나는 약방에 감초처럼 여러가지 일에 관심 이 많아 새로운 일이나 흥미로운 일이면 물불을 안가리는 편이다.

나의 직장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인데 정부(주로 체신부)의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곳이다. 연구원에서 내가 맡은 업무는 일반 사무, 주로 원고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문서수발과 비서업무도 겸하며 연구에 필요한 보조적인 업무(커피, 카피 등)는 다 한다.

입사 초 한동안은 업무에 대한 불만족과 학력격차 등으로 상당히 많은 갈등을 겪었다. 그래서 평생일터로서의 개념보다는 잠시 머물다 가는 정도로 생각했었고,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기 위해 학원에도 다녀보며 고민도 많이 했었다.

그러던 89년 7월경쯤부터 여직원들이 하나, 둘 몸이 아프다거나 피로를 자주 느끼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타직급의 직원들은 계속 채용하면서 유독 여직원들은 채용을 하지 않아 업무가 계속적으로 늘어났고, 또한 개인비서처럼 일을 시키는 박사들로 인해서 피로가 누적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때 시작한 것이 여직원들의 업무형태와 건강상태를 조사하여 회사 측에 제시하였다. 이에 어떤 간부는 "구로공단

에 가봐라. 그런데서도 멀쩡히 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직장같이 좋은 환경에서 무슨 불만이냐"고 응수하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설득하는 형태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요구의 수준을 높여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갔다. 타회사들의 사례도 조사해 보고 업무도 개인적 업무의 배제와 잡무를 줄여 나갔다. 한 예로, 매일 아침 타 바치던 커피를 직접 타 먹으라고 했을 때는 황당해하는 정도를 넘어서 정신이상자 취급을 했다. 직접 상관으로 일하던 박사는 사흘이 멀다하고 매일 불려서 '대체 불만이 뭐냐, 왜 꼭 내가 나서야 하느냐, 내 입장을 좀 생각해 줘라. 직속 상관으로서 곤란하다'고 하면서 다그치는 괴로운 시절도 있었다.

일터에서 보조자로서가 아닌 활동의 주체이고 싶어하는 서로의 의지를 모아 새롭게 여직원회를 만들고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활동하면서 내전 많은 인적전환의 계기와 변화가 생겨났다. 그러면서 여성민주회와도 인연을 맺었고, 지금은 우리 직장내에도 엄연히 존재했던 결혼퇴직제가 철폐되고 지금은 결혼은 물론이고 아기를 낳아 출산휴가 60일, 육아휴직 1년까지 파내는 패거리를 올렸다.

처음 모성보호 조항을 단체교섭에서 파낼

때, 여직원들조차도 그때까지 어느 여직원들이 다닐까 의구스러워 했었다. 여직원의 반수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는 지금은 서서히 직장탁아소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되돌아보면 가슴아프고 속상했던 일들도 많았고 가슴벅차고 뿌듯한 일들도 많았던 것 같다.

성격이 적극적이고 직설적인 편이어서 조직내에서도 좀 튀지 않았나 싶고, VDT중후군으로 고생하기도 하면서 건강이 악화되니 모든 다른 면에서도 자신을 많이 잃었던 것 같다. 그래서 VDT관련해서 보다 뚜렷한 결과를 만들지 못한 것이 지금도 아쉽다. 노동조합의 도움으로 휴직이라도 받아낼 수 있는 수준에 그쳤지만 나 개인에 있어서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경험하게 해주는 중요한 때였던 것 같다. 



민주회 사무직회원 송년잔치에서 손국에 참여한 정경숙(왼쪽), 김미숙회원

하얀 눈빛으로, 겨울과 새해이야기...

강남 — 서초 지역협의회

시간이 우리를 실지 않은 채 앞서 달리더니 어느새 또 다른 새해의 문턱입니다.

“생협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할 걸...” 하시는 회원이 계시다면 안심하십시오. 시간의 매듭이 인위적인 것이듯 민우생협도 언제나 현재진행형입니다.

12월엔 운영위원 중심으로 만나서 한해를 반성하고 '내년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원 대림 공동체에서 열심히 하신 봉사자 김희숙 회원이 참석해 주셔서 몹시 기뻐했습니다. 3월엔 공동체별 간담회를 열어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 실천하도록 하고 공동체 대표자 모임과 여성학교를 봄, 가을 두차례 열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 1회의 소모임을 갖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원하시는 회원은 연락을 주십시오. 상식 이상의 실력을 쌓아봅시다.

고 혜 경 지역 운영위원

구로 — 영등포 — 양천 지역협의회

지난해 12월 14일, 올망졸망 어린 애들을 말 그대로 업고 걸리고 하며, 멀리 안양에서부터 오는 회원들의 극성스러움(?)속에 우리 지역회원들은 송년모임을 가졌습니다.

서로를 좀 더 잘 알자는 뜻에서 자기 신상소개도 가졌고, 지역협의회 발전에 위한 여러 제안도 하였습니다. 서로 얘기가 오가는 중에 말문이 막히면 그저 까르르... 가물거리는 충기를 안타까와하기 보다는 느긋한 여유를 주부들의 모습이라고 서로 자위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항시 우리모임을 위해 장소를 제공해주는 아람피아노원장 이정숙 회원에게 감사의 성의를 표하고, 참석했던 모든 회원들에게도 이 명목 저 명목을 붙여 하나씩 선물이 돌아가니, 모두들 희색만발. 우리 회원들 모두의 가슴속에는 지역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방학 특강인 어린이 글쓰기교실이 다시 열리고, 큰 호응속에 계속된 손침강좌는 미남 총각선생님의 열성과 자상함에 매료되어 계속 수강을 원하는 회원이 많아, 기존 수강자 회원 외에 새로이 수강자들을 더 모집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주부풍물팀 단비의 지도로 국민학생 대상의 어린이 풍물교실을 1월 17~21일까지(오후 2~4시) 피아노학원에서 갖기로 하였습니다. (회비 15,000원)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조 영 숙 지역 운영위원

노원 — 도봉 지역협의회

93년 해 마감잔치가 회원들의 많은 참여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55명이나 참석한 덕분에 준비한 선물이 모자라 애를 태우기도 하였습니다.

소모임별 장기자랑에서는 「모의구정절의」를 연출한 <의정모임>팀이 1등을 차지했고, 여성학팀이 「가사 바퀴부르기」로 2등을 차지하였습니다.

1년간 민우회활동을 가장 열심히 한 회원에게 돌아가는 모범회원상에는, 군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1년동안 생협봉사자를 혼자 했으며 <의정모임>에서 우수한 출석률을 보이며 성실하게 활동한, 유경혜회원. 언제나 밝은 얼굴과 고운 목소리로 남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는 차은주회원. 새침때기지만 바느질부터 음식, 한자, 일어 등 못하

는 것이 없는 최찬애 회원. 생협 매출을 늘리기 위해 비회원에게까지 주문을 받아 일일이 배달까지 해주는 열성과 정경희 회원. 딸기잼, 유자차 만들 때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민우여성학교 홍보지를 아파트마다 일일이 다니면서 나눠주신 김경숙 회원 등 모두 5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우수 공동체상은 방학 신동아2(봉사자 이해경)와 중계주공4단지(봉사자 임재련)공동체가 선정되었으며, 출석률이 제일 좋은 공동체에게 돌아가는 단결상은 11명이 출석한(아이들까지 20명) 중계 현대(봉사자 방문정)공동체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차지했으며 가장 아름답게 차리고 나온 회원에게 돌아가는 멋쟁이상은 빨간 스타킹

이 돌보인 김영애회원과, 인어공주의 치마를 빌려 입고 온(?) 김혜순회원이 차지했습니다.

권미혁회원의 유머넘치는 사회로 진행된 해마감잔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회원들 마음마음속에 민우회 회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년에는 더욱 열심히 활동하리라 기대를 가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가지 알려드릴 소식은 권미혁, 김은경, 조영옥, 김연순, 박범이, 피원아 회원이 1년동안 고생고생해서 만든 「주부의 손에 지구가 있어요」라는 제목의 주부가 쓴 지구사랑 안내서가 발간되었다는 것입니다. 환경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 연 순 지역 운영위원

서대문 — 은평 지역협의회

93년 망년모임이다 뭐다 해서 분주한 동안 우리 지역협의회 사무실에서 유자차 작업이 이틀씩 두번에 걸쳐 한창이었습니다. 빈 박스위에 카페트와 돗자리를 펼쳐놓고 입으로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며 유자의 씨를 빼고 칼질을 하고...

김장철이 되고 방학이 가까와 오니 주부들은 자연히 문화강좌 등에는 관심이 없었던 듯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생활도자기반만 유일하게 금요일 오전 오후로 나뉘어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서연구회 교사들이 열심히 진행해주신 독서지도에의 부모역할도 6회에 걸쳐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용히 지난 1년을 돌아보고 그간의 평가를 하였으며 재정결산과 새해예산을 세우느라 또 한번 골치(?) 아픈 작업을 끝내니 어느새 새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간 같이 나아간 서대문-은평지역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새해에는, 회원여러분이 사무실을 '우리들'의 공간으로 생각하고 꼭 불일이 없더라도 아무 부담없이 들러 차라도 한잔하고 가면 더없이 반가우리라 생각합니다. 하여간에 올해에는 좀 더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됩시다!!

회원 여러분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양 해 경 지역 대표

강동 — 송파 지역협의회

93년도를 마감하며 신혜숙대표님께서 맛깔스런 음식에 청하한잔을 곁들였습니다.

매달 모여 지역월례회 내용을 짜고, 서로 나눠 연락하기를 한번도 빠짐없이 하였지만 강동과 송파의 지역적 차이와 광범위하게 떨어져있는 회원구성은 고덕주공을 넘어서서 타동내 회원들로 확대되지 못하였습니다. 몇년후에는 명실공히 강동-송파지역협의회로 갖춰질 날이 있으리라는 난관적인 전망을 하며 94년도에는 주부들의 가장 좋은 모임의 형식인 계모임으로 지역모임을 이끌기로 하였습니다.

94년도에는 지역협의회라는 틀을 깨고 우선은 강동지역모임으로 소박하게 갑술년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박진경 교육조직부 간사

분당지역모임

지난해 12월 9일, 준비위원들이 모여 올해 상반기 계획을 대략적으로 짜 보았습니다.

4월경 민우여성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회원들의 친목을 다지고 회원확보에 주력하며 분당지역의 특수성을 고민하며 앞으로의 활동을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12월 16일에는 박영희회원 집에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23일에는 '무소의 뿔~' 연극을 관람하였습니다. 결혼 후 10여년만에 처음으로 연극을 관람하였다는 회원들이 많아 우리 주부들의 생활이 이렇게 자신을 위한 시간이 적음을 실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신을 위해 책을 사고 연극관람을 하는 등 민우회에 들어오니 신나는 일이 많다는 한 회원의 말을 들으며 우리 지역모임의 활성화는 지역발전 이전에 바로 나 자신을 위한 활동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뿌듯한 마음이기도 하였습니다.

김현미 지역모임

93년 공동체별 매출순위입니다

순위	공동체 (봉사자)	매출금액
1	동작4 사당대림 (남해경)	13,853,265
2	은평12 여성개발원 (송성숙)	12,854,700
3	관악1 낙성대교수A (문정화)	11,603,280
4	안양2 석수한신 (이순자)	11,186,800
5	강남14 압구정현대 (한국희)	10,223,435
6	강남7 대치쌍용 (김명화)	9,897,500
7	송파19 문정중학교 (백영희)	9,879,500
8	구로1 고척우성 (안경순)	9,808,830
9	서초14 잠원대림 (김희숙)	9,498,200
10	노원1 중계현대 (신경혜)	9,419,700
11	송파10 올림픽기자촌 (김미정)	8,759,255
12	도봉11 방학신동아 (이혜경)	8,693,725
13	도봉7 쌍문한양 (정혜숙)	8,429,000
14	서대문10 홍은유원 (이현숙)	8,236,800
15	관악6 장미원아파트 (한지희)	8,109,820
16	관악4 관악여상 (박인순)	8,062,470
17	도봉14 수유2동 (김성애)	7,981,460
18	노원10 중계주공4단지 (임재련)	7,785,075

안녕하세요? 민우회 생협입니다

12월 31일 현재, 생협에 참여하는 회원은 1,609명이고 출자금은 55,899,180원입니다

새품목입니다

●야콘(4,200원/2kg)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배와 무의 중간 맛이 납니다.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기능을 도와주며, 그냥 껌아드셔도 좋고 샐러드용으로도 무난합니다. 작년 메뚜기잡기대회 때 시식하신 분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은 품목입니다.

●돌김(5,600원/1속)

엽산처리를 하지 않은 김입니다. 그냥 구워서 간장에 참기름을 한방울 떨어뜨려 드시면 재맛이 납니다.

●볶은 땅콩(3,700원/1kg)

겉껍질 새 볶은 것입니다.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아주 뛰어납니다.

●곶감(23,000원/1집)

씨가 없고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예쁘게 묶여 있어서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마른나물로 비타민과 무기질이 부족해지기 쉬운 겨울철의 영양을 보충해 주십시오.

아래의 지역은 1월 25일부터 공급요일과 주문요일이 변경됩니다

공급물량이 편중되어 불가피하게 공급요일과 주문요일을 조정합니다. 아래의 공동체 이외의 곳은 기존의 공급요일과 주문요일에 변동이 없습니다.

올해도 생협물품 주문과 이용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역	공동체	변경전 공급요일	변경후 공급요일	변경후 주문요일
관악	낙성대 교수아파트, 장미원 아파트 신림4동, 관악역상, 남현동 등 관악구 전지역	목	수	토
동작	상도 대림아파트, 사당 대림아파트 등 동작구 전지역	목	수	토
서초	삼호가든 라동, 2동, 3동, 4동, F동 반포 주공3단지, 구반포아파트	화	수	토
	방배 우성, 신동아, 궁전아파트	금	수	토
강서	화곡7동 중앙하이츠	수	목	일
양천	목동아파트 2단지, 3단지 신화연립 목동 청구, 동신, 왕자, 목4동 등	수	목	일

품 목	단 위	가 격	생 산 지
무농약백미	8kg	19,300	홍성품무생협
일반미	8kg	13,500	" (저농약)
현미	8kg	18,300	"
오분도미	8kg	18,300	"
현미잡알	4kg	15,000	"
백미잡알	4kg	13,000	"
보리	2kg	2,800	괴산 잡곡은 산지가격에 따라 조정됩니다.
감정콩	1kg	5,200	"
사리태	1kg	4,700	"
완콩	1kg	2,400	"
참깨	1kg	16,000	"
녹두	1kg	5,500	"
수수	1kg	2,800	"
완	1kg	3,400	"
기장조	1kg	2,900	"
차조	1kg	4,500	"
멥기름	1kg	2,500	"
유정란(30알)	30알	3,900	홍성, 햇볕을 받으며 온돌한 닭이 발효사료를 먹으며 낳은 달걀
유정란(10알)	10알	1,300	"
두부(소패)	1포	1,000	"
콩나물	350g	600	홍성, 국산콩 사용
도라지	300g	1,300	"
통도라지	300g	1,300	"
도토리묵	330g	1,000	더불어 사는 마을
정보묵	330g	1,000	"
조미간장	900ml	5,800	한국미연
홍성원장	1kg	5,000	마른식품
고추장	1kg	7,000	생협
청국장	300g	1,800	홍성
해물다시마	150g	1,900	더불어 사는 마을
참조청	1kg	8,000	경주
현미식초	900ml	1,500	영도식품
감식초	500ml	4,700	해남 모듬살이 농장
복음들깨가루	300g	2,500	보은
도토리가루	500g	5,500	"
참깨가루	1kg	3,500	생협
고구마전분	1kg	3,000	삼원식품
귀은소금	3kg	1,500	" (임차도 청정해역의 자연염)
붉은소금	1kg	1,700	"
죽염(1회)	500g	5,500	민속죽염, 식용, 양치질용
죽염(9회)	125g	20,000	" 약용
죽염세트1	1회2.9회1	32,000	"
죽염세트2	1회1.9회1	26,000	"
죽염세트3	1회2	11,000	"
멸치액젓	900ml	2,000	목포
멸치육젓	2kg	3,600	"
황석어젓	2kg	3,800	"
참기름	340ml	13,500	보은 농민방앗간
들기름	340ml	5,000	"
고추씨기름	320ml	4,700	"
기름세트	3병	24,000	참기름, 들기름, 고추씨기름
볶은깨	150g	2,800	"
고춧가루	600g	11,000	생협
가는고춧가루	600g	11,000	"
시래기	200g	1,800	홍성

따르릉 521-2088~2089 1993년 12월 31일 현재

품 목	단 위	가 격	생 산 지
무알갱이	100g	1,400	
가지나물	100g	2,000	
애호박고지	100g	2,000	
취나물	100g	2,000	
고춧잎말린	100g	2,000	
고사리	100g	3,500	
황을	100g	1,300	
토란대	100g	1,500	
표고	200g	6,000	
영지버섯	300g	23,000	김포
영지새트		27,000	대추, 감초
들깨송이부각	100g	2,000	거창 YMCA
감자부각	100g	1,800	"
김부각	100g	1,800	"
참김	1속	4,000	전도, 임산처리 안한것
들김	1속	5,600	
꽃김	100개	23,000	
파래김	1속	3,700	"
다시마	500g	2,000	"
미역	200g	2,300	원도
국물멸치	300g	3,000	전도, 한면에서 바닷가에 그물을 치고 멸칠
볶음멸치	300g	4,000	"
지리멸치	300g	4,000	"
복어채	500g	6,000	무성수산
복어포	5마리	5,000	진부령상사
통복어	6마리	4,000	"
오징어(1속)	20마리	11,000	울릉도
영광굴비	20마리	12,000	영광
호박엿(사탕)	300g	1,000	울릉도
호박엿(당어리)	400g	2,000	울릉도
미식가루	1kg	6,000	강원(보리, 현미, 참깨, 감초, 꿀)
보리차	600g	1,000	보은 농민방앗간
옥수수차	600g	1,000	"
들깨차	200g	1,800	"
감일차	200g	6,500	광주 한살림
두송차	100g	1,300	한양
현미차	350g	1,500	생협
유자차	1.2kg	9,000	
구기자	600g	15,000	전도
치커리차	200g	10,000	
말기름	1.2kg	10,000	연우회
명란젓	500g	9,000	강원한살림, 천연조미료만 사용
참란젓	500g	8,500	"
오징어젓	500g	6,500	"
젓갈세트	3종	24,000	명란젓, 참란젓, 오징어젓
술외강아찌	1kg	8,300	군산 삼학식품
미역튀김조림	100g	1,500	"
다시마튀각	100g	1,500	"
사과즙스	800ml	2,000	정암농장
호박약소주	10봉	6,500	"
고구마당면	500g	3,000	삼원식품, 국산고구마전분 사용
수제비	500g	3,000	더불어 사는 마을
도토리찰국수	600g	2,300	"
우리밀찰국수	350g	2,500	보리식품
쌀찰국수	350	1,200	보리식품
김치만두	500g	2,500	더불어 사는 마을(국산두유)
야채만두	500g	2,500	" (편만두용)
우리밀식빵	450g	2,300	"
카스테라	1개	2,000	"
시몬케이크	5개	1,500	"
주먹빵	2개	2,000	"
연가래떡	1kg	3,500	생협
떡볶이	800g	2,200	"

품 목	단 위	가 격	생 산 지
햄	500g	7,000	더불어 사는 마을, 정부세 팔백제 언급
소세지	500g	5,500	"
멸태어묵	300g	2,500	"
오징어어묵	300g	2,500	"
아카시아꿀	2kg	32,000	노령
감화꿀	1kg	16,000	화천
한살리새트소	1,100ml	10,000	한살리
해남과새트소	2l	22,000	해남모듬살이농장
홍성과새트소	2l	18,000	홍성
난황유	60ml	13,000	제원 송학애농회
다덕술	1.5l	10,000	홍성
전도홍주	400l 2병	10,000	
안동소주	800ml	32,000	
문배술	700ml	26,000	
포도주	1,100ml	5,000	금릉
죽맛	200g	500	"
식금치	300g	650	"
달근	1kg	1,500	"
고구마	2kg	3,000	홍성
부우	1개	500	"
냉어	400g	1,000	"
늑은호박	1kg	1,000	"
갓	800g	1,000	"
악힌고추	400g	1,300	"
꼬마양배추	400g	3,000	재천
대과	1kg	1,300	
쇠불고기	600g	12,000	씨알축산, 한우
쇠갈조림	600g	12,000	"
양지	600g	12,000	"
사태	600g	12,000	"
쇠고기간것	600g	12,000	"
등심	600g	14,000	"
안심불고기	600g	14,000	"
안심스테이크	600g	14,000	"
갈비	1kg	16,000	"
갈비세트	3kg	50,000	"
갈비세트	5kg	83,000	"
돼지불고기	600g	3,900	" 들밥돈사에서
돼지갈조림	600g	3,900	" 향생계 살갈속전제품 편
돈까스	600g	3,900	" 사료를 먹임
돼지고기간것	600g	3,900	"
돈수육	600g	3,900	"
삼겹살	600g	4,300	"
돼지갈비(LA)	1kg	7,000	"
통닭	1마리	4,400	"
토막닭	1.2kg	4,400	"
삼계	2마리	6,400	"
사과	5kg	9,000	홍성
꿀	2kg	3,000	
갓	140g	6,800	포천농협
갓세트	140g×2	13,600	"
천연샘	500ml	1,800	한국소유지
생이랑	500ml	4,500	"
새제선물세트	4병	12,600	천연샘2, 생이랑2
가루비누	1kg	1,800	협성생산공동체
고세비누	4장	1,000	"
화장지	50m×10	2,200	부림제지
저학년공책	10권	2,000	아시아문화교육연구회
고학년공책	10권	2,000	"
중고생공책	10권	2,500	"
편지지킴이		3,100	"
양말	10켤레	13,000	생협중앙회
갓세트	2명	25,000	민우회

94년 1월 29일 토요일 2시 30분 한국여성민우회 제7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뜻깊었던 93년을 정리하고 새로이 한해를 시작합니다.

민우회에 있어 93년은 <바른 의정을 위한 여성모임>을 결성하여 지역여성운동체로서 뿌리내리기 시작한 의미있는 한 해입니다. 또한 뜻있는 여성단체들과 함께 장충동 '여성평화의 집'으로 사무실을 옮겨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는 1월 29일은 모든 회원이 함께 모여 민우회의 사업을 검토하는 정기총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지역자치시대를 맞아 참여민주주의의 꽃으로 하나된 회원 여러분의 애정으로 민우회의 밝은 앞날을 설계해 봅시다.

총회가 끝나고는 맛있는 뒷풀이잔치와 이야기마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회순서

... <어머니노래반>과 잠시 즐거운 시간

1. 개회선언
2. 국민의례
3. 격려사
4. 인사말
5. 상원보고
6. 의순채택
7. 회의록 작성자 및 서명인 선출
8. 전차 회의록 낭독
9. 의안심의 — 93년 감사보고 및 활동보고 승인
— 93년 결산안 승인
— 9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 정관개정 승인
— 임원선출
10. 기타 — 차입금 한도액 승인
— 우수공동체 및 우수회원 수상 등
11. 광고, 폐회

<자기만의 방>에 이은 여성주의 연극 그 두번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원작 : 공지영 ●각색 : 전혜성 ●연출 : 서충식

●출연 : 박해숙, 김미경, 김진희 외

94. 2.3~3.3 회수 7시/목2시, 7시/금토일 4시, 7시
목요일 2시에는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연후에는 출연진, 만든
사람들과 관객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연 우 무 디 ☎ 744-7090

여성문화예술기획 ☎ 584-6048

전화예약 받습니다

노원-도봉 여성민우회 <환경팀> 회원들 「주부의 손에 지구가 있어요」 책 발간

주부의 손에 지구가 있어요



노원-도봉 여성민우회 <환경팀> 회원들이 「주부가 쓴 지구사랑 안내서 — 주부의 손에 지구가 있어요」를 지난 12월 발간하였다.

살림을 하면서 생활속에서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한 김은경, 권미혁, 조영옥, 김연순, 박범이, 최원아 회원이 함께 모여 공부를 시작한지 1년만의 성과이다.

공부를 하면서 지구가 멸망치 않고 자자손손 유지되리라는 점에 의구심이 들 정도로 환경문제의 심각함을 느껴었고, 그러면 그럴수록 주부들이 반드시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더욱 많은 주부들과 함께 실천해 나가고자 주부들의 생활속 지침을 담은 이 책을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숨쉬기가 겁난다
심각한 대기오염
맑은 공기를 위해 주부들이 해야 할 일
2. 화장대 앞에서
화장품의 정체
바른 화장을 위해 주부들이 해야 할 일
3. 먹거리가 독약이라 아우성이요
분이네의 아침식탁
식품첨가물의 해
물려오는 수입농산물,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의 식탁을 지키기 위해 주부들이 해야 할 일
4. 마실물이 없다
수질오염이란?
어떤 물을 마실까?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 주부들이 해야 할 일
5. 쓰레기를 버리면서
쓰레기를 버리면서 주부는 답답합니다.
쓰레기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 주부들이 해야 할 일
6. 환경운동을 합시다
주부의 힘을 자각합시다
환경을 생각하는 생활모습으로 바뀔시다
환경문제를 공부합시다
주변의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봅시다
정부의 환경정책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환경운동입니다
환경운동, 여성운동단체에 가입합시다
7. 일하기 힘들지만 보람느껴요(좌담)